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한동 동문들의 30가지 이야기는 지난 30년의 교육이 어떻게 삶에서 열매 맺는지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동의 정신을 실천하며, 보이지 않는 가치를 현실의 변화로 바꾼 사람들. 이 30인의 이야기는 한동이 세상을 향해 던진 질문—“Why not change the world?”—에 삶으로 답하는 또 하나의 역사입니다.

동문 30인 인터뷰 Portraits in Progress

The 30 Portraits in Progress

여전히 한동을 빚어가는 30인의 초상

학부 이야기 Undergraduate Studies

배워서 남 주는 사람들

캠퍼스 목소리 Voices on Campus

하나님의 미래, 한동의 오늘

한동을 세우는 손들, 30년의 뒤편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한동인 이야기



The 30 Portraits in Progress

여전히 한동을 빚어가는 30인의 초상

한동의 30년을 완성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세상을 변화시켜라” “불가능을 행하라”는

한동의 메시지는 교정을 넘어 각자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렸다.

인터뷰에 응한 동문 30인은 서로 다른 현장에서 사람을 세우고,

세상의 틈을 메우며 여전히 그 메시지를 실천하고 있다.

이들의 삶이 곧 한동을 써 내려가는 현재진행형의 문장이다.

스마트폰, 우리 시대의 ‘땅끝’을 개척합니다, 임영광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동대학교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95학번 임영광입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를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각화하는 비전 아래 그래픽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이후 미국 버지니아 리젠트 대학교(Regent University)에서 신학과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해 Master of Divinity(2004~2007)와 Master of Arts in Communication을 취득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방송국 ‘CGN(Christian Global Network)’에서 플랫폼 & 콘텐츠 제작 본부장으로 복음을 담은 콘텐츠 제작과 플랫폼 전략 수립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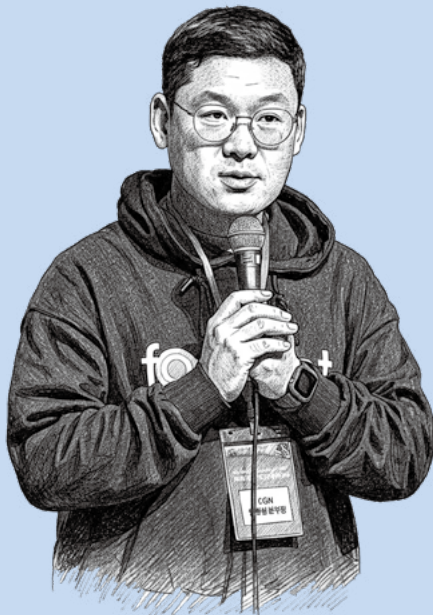
이 일을 시작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처음엔 생명과학부에 입학했다가 2학년 겨울방학 때 떠난 이스라엘 단기 선교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았습니다. 기도 중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고, 독사 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는 이사가서 11장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확신하고 디자인으로 전공을 바꾸었습니다. 대학원에서 신학·영화·방송을 공부하고, 이후 11년간 교회에서 예배 및 미디어를 디렉팅하는 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막막하고 회의했는데, CGN에 합류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디어를 통한 복음 전파의 지경을 넓혀주셨음을 확신했습니다.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의 영역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그중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TV를 넘어 OTT 플랫폼으로 콘텐츠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CGN도 CGNTV라는 회사명에서 TV라는 글자를 과감히 떼고, 국내 최초의 기독교 OTT 플랫폼 ‘퐁당(Fondant)’을 개발 출시했습니다. 모두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우리 시대의 ‘땅끝’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늘 생각합니다. 능력 있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시각화’해 언어와 문화의 장



임영광은 95학번으로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를 졸업했고, 미국에서 신학과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고, 현재 기독교방송국 ‘CGN’에서 플랫폼 및 콘텐츠 제작 본부장으로 섬기고 있다.

벽을 뛰어넘는 변치 않는 궁극적 목표를 실천합니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복음’을 콘텐츠에 담고, 플랫폼과 채널을 통해 전파하는 일입니다. 창의적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 ‘무엇을 말할 것인가(what to say)’를 고민하고, 탁월한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어떻게 말할 것인가(how to say)’를 구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품질을 추구하되, 동시에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공동체와 동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목적을 위해 일하지만, 일 그 이상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일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실현하는 통로입니다. “배워서 남 주자”는 말씀처럼 지금도 모든 한동인이 예수님처럼 낮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복음에 기초한 ‘Academic Excellence’를 추구하는 한동의 정신은 제 일의 기준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하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의 본질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한동에서의 배움이 어떤 힘이 되었나요?

CGN의 콘텐츠가 교회의 성도들과 전 세계 선교사에게 실질적 도움과 위로가 될 때 보람을 느낍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고고 바이블>과 <갯튼> 같은 어린이 콘텐츠를 통해 어린이들이 《성경》에 흥미를 갖는 모습도 행복합니다. 또 교회와 선교지에 필요한 미디어 노하우를 나누는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를 통해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에게 도움을 드릴 때도 기쁩니다. 무엇보다도 CGN의 미디어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서 들려올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학교에 다닐 때는 물론, 지금까지도 소식을 주고받는 동아리 ‘피치파이프’ 회원들에게 늘 감사합니다. 동아리 역시 학교와 더불어 30주년을 맞았는데, 지난 2025년 8월 학교에서 ‘리유니언 행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체성으로 아름

답게 화음을 맞추며 연합하는 후배들을 보며 동아리의 창립자로서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1학년 때 극도로 지친 저를 위해 칠포해수욕장의 숙소를 잡아주시며 휴식을 선물해주신 당시 생활관 사감 선생님 김휘준 목사님, 팀 학생들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주신 이건 교수님과 고명진 사모님, 이기복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30년, 한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어느덧 서른 살이 된 한동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제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극심한 양극화, 청년과 청소년이 복음에 마음을 담고 방향하는 지금이야말로 한동의 시대적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숙과 변화를 추구하는 섬김의 리더십을 갖춘 동문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 각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기도합니다.

한동 후배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결론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출발점이자 마침점입니다. 그분만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십시오.

대학 시절은 《성경》과 책을 많이 읽고, 신앙을 깊이 고민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세상의 재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젊음이라는 황금기를 활용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에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딛기를 응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출발이자 마침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디세요.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김윤상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96학번으로 생명식품과학을 공부하고, 멕시코 케레타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김윤상입니다. 이 지역 한인 교회의 중고등부와 청년 대학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이들이 멕시코 현지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을 돕고 있어요. 지역 교회를 통해 《성경》을 보급하고,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목상 운동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가 없이 직업이나 전문성을 통해 생계와 사역을 수행하는 자비량(自費糧) 사역이다 보니 미국의 덴버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지금의 일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사업가로 성공하고, 장로가 되어 교회나 선교사를 후원하고 싶다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동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겠다는 꿈을 안고 과테말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분의 예비하심이였을까요, 대학에 다니며 예수 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2017년 저와 제 아내에게 “떠나라”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고 강력하게 주셨어요. 6개월간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순종을 결심했지요. 그 즉시 과테말라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멕시코 선교사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의 영역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그중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기술의 발달 덕분에 멕시코에 있으면서도 미국 신학대학원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목상 운동 또한 작은 규모인데도 국경과 지역을 가리지 않게 되었고요. 그러나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본질이나 진리가 될 수 없죠. 기술은 삶의 모양을 바꿀 수는 있지만,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진노 가운데에서 은혜로, 내가 주인인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으로 바꿀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김윤상은 96학번으로 생명식품과학부에서 생명식품과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멕시코 케레타로 지역을 섬기는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맞서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여러 목적을 위해 일하지만, 일 그 이상의 존재
이기도 합니다.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그야말로 축복입니다. 그러나 일 자체가 목적이 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잊은 채 살아가게 되죠. 사회생활은 물론 선교 및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와 선교 사역은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한 분들의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시작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역 자체가 목적이 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기술과 마찬가지로 사역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수단 이 목적이 되면 본질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증거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가장 어려웠던 순간
은 언제였나요? 그때 한동에서의 배움이 어떤 힘이 되
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은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 회사 직원들은 물론 멕시코 전국의 거래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거래가 성사되고 계약을 따내는 일보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가장 소중합니다.

물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가 거래가 끊기고 계약을 놓쳐도 감수하겠다고 다짐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거래처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사를 향한 신뢰가 쌓여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정작 어려움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선교 단체의 리더와 목사 등 교계를 선도하는 분들로부터 음해와 압박과 시비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협박도 받았죠.

그때마다 한동에서 배운 정직함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숨길 게 뭐가 있을까요! 사

람마다 다르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늘 정직하려고 노력합니다. 내 힘으로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으며, 불평하며 맞서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한 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김영길 초대 총장님은 감사함을 넘어 상징과도 같은 분입니다. 결혼식 주례를 서주셨고, 제가 2018년 멕시코에서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맬 때 매일 밤 기도하시다가 책상 밑에서 잠드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암 투병으로 고생하시는 가운데 병상에 누워 있는 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면서 말끔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격려해주신 영상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30년, 한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고, 그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지식과 능력을 겸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복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지식 및 능력을 쏟아부어도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에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동이 되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한동 후배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이 퇴색하고 변질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한동의 후배들이 한동에서의 시간을 통해 복음을 올바르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올바른 복음 위에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 공부하는 전공 분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 분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증거들이 삶에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 되기, 좋은 사람과 함께 일하기, 정강욱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96학번 경영경제학부 졸업생 정강욱입니다. 조직개발 컨설팅 회사 ‘리얼워크’의 경영자이자 조직개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직개발(organization development) 컨설팅은 조직 문화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컨설팅입니다. 주로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조직 문화 진단, 조직 변화 관리, 리더십 개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사람’에 대한 관심이 컸어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심리학 책을 많이 접했고, 대학 학부 때 ‘조직행동론’ 수업을 들으며 재미있게 공부한 기억이 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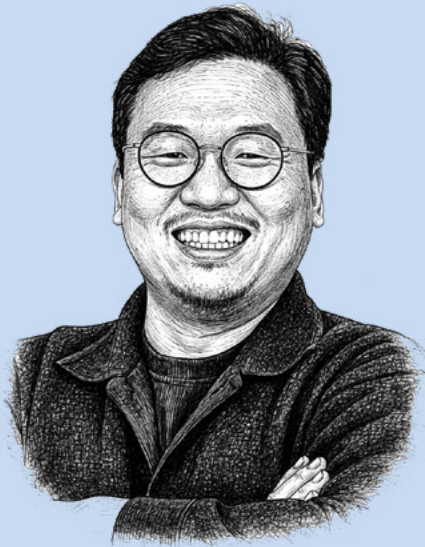
처음부터 이 일을 한 건 아니었어요. 기업에서 마케팅, 세일즈를 거쳐 HR 업무를 경험하며 ‘조직의 생리’를 배울 수 있었죠. 더불어 MBA를 마치고 박사과정에서 산업인력개발학을 전공하며 점점 ‘조직, 사람, 교육’ 분야를 깊이 파고들었고, 자연스럽게 조직의 변화와 구성원의 성장을 돕는 지금의 길로 이어진 듯합니다.

돌이켜보면 길을 찾고, 또 길을 만드는 방법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주어진 일에 몰입하고, 그 경험을 성찰하며 나를 알아가기. 불안에 발목 잡히지 말고, 용기 있게 선택하고 독심 있게 헤쳐나가는 것 말이지요.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의 영역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그중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지금 AI는 일하는 방식을 무서운 속도로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은 컨설팅 분야도 사람이 온종일 매달려도 될까 말까 한 일을 30분 이내에 더 나은 수준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은 늘 변화해왔습니다. 달라진 점이라면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진 거겠지요.

조직이란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업 시스템’입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조직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최복동’이라는 말이 생긴 게 아닐까요. 최고의 복지는 동료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변해도 ‘좋은



정강욱은 96학번으로 경영경제학부를 졸업했고, 현재 조직개발 컨설팅 회사 ‘리얼워크’의 창업자이자, 대표 조직개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은 사람'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좋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여러 목적을 위해 일하지만, 일 그 이상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일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잡(job), 커리어(career), 콜링(calling)인데요, 이 세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잡으로서의 일은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적 안정을 얻는 수단입니다. 현실적 필요를 채워주죠. 커리어로서의 일은 전문성을 키우고 성장하며, 나의 역량과 영향력을 확장하는 과정입니다. 콜링으로서의 일은 나의 재능과 열정을 통해 세상에 의미 있게 기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이 균형 있게 어우러질 때 일은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믿습니다. 생계를 위해, 성장을 위해,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일합니다.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한동에서의 배움이 어떤 힘이 되었나요?

좋은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며, 성과의 결실을 함께 나눌 때 보람됩니다. 특히 조직이 실제로 변화하고, 구성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큰 보람을 느껴요. 물론 어려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30대 중반, 공동으로 창업한 사회적 기업을 폐업했는데요, 아무리 좋은 뜻을 품고 최선과 열정을 쏟아부어도 비즈니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 실패의 경험이 쓰지만 꼭 필요한 약이 되었습니다.

한동에서 삶을 통한 배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빛진 자로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기'가 아닐까 싶어요. 삶의 근간을 이루는 정체성을 형성해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한동에서 형성한 정체성을 자주 확인하며 인생의 초점을 성취에서 삶의 태도로 옮겨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성취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라, 한동이 가르쳐준 정체성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러닝 퍼실리테이션: 가르치지 말고 배우게 하라》는 책을 집필하던 과정과 결과가 떠오릅니다. 이 책 덕분에 리얼워크를 시작할 마음을 굳혔으니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책인데요, 책을 쓰는 과정과 알려지는 과정에서 이전까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을 쓰면서 문득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이 업계에서 텅털며 수십 권의 책을 탐독해가면서 힘겹게 배운 핵심 비법을 다 풀어놓는 건 아닐까 고민한 거죠. 돌아보면 부끄럽지만, 적어도 그때는 이렇게 상세하게 공개하면 이른바 '개털'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80%만 공개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동에 다니며 김영길 초대 총장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셨던 "배워서 남 주자"라는 말이 퍼덕 떠올랐습니다. 결국 "아는 것 다 쓰고, 털고 떠나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더욱 상세하게, 더욱 이해하기 쉽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책이 출간되고 깜짝 놀랄 만큼 감사한 피드백을 곳곳에서 받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의 요청도 밀려왔고요. 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100%를 쏟아 보니 어느새 제가 120%로 성장했음을 발견했습니다. '나누면 돌아온다'는 당연한 사실을 삶으로 체험하게 되었어요. '잘 나눌 때 전문가가 된다'는 것도요. '탁월함의 근원은 사랑'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삶의 현장에서 배운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공동체를 빛내는 사람, 성취보다 섬김의 가치를 아는 사람.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변해도 '좋은 사람'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30년, 한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혼자 빛나는 사람이 아닌, 내가 속한 곳을 빛내는 사람이 되자’, 저의 인생 모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공인 디자인은 물론 인성과 영성에서도 성숙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속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답을 찾는 노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훗날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걸어온 발자국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올해 리얼위크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한동대 후배의 자기소개입니다. 입사 후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처럼 함께 빛나는 귀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 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요? 혼자 빛나기보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빛내고, 성취보다 섬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양성해낸다면 이 땅에 한동이 존재할 가치는 충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동 후배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한동의 가장 큰 장점은 남송리에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함께할 좋은 친구들을 만나세요. 모든 일에 사랑으로 거침없이 도전하는 후배분들이 되길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한동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과학의 시작, ‘사람’을 향한 마음, 김의호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염병과 백신을 연구하는 평범한 생명과학자, 97학번 생명식품과학부 졸업생 김의호입니다. 처음 인터뷰를 요청받고 나서 ‘내 이야기가 과연 의미 있을까’ 싶어 사양했습니다.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특별하지 않은 삶에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용기 내어 이렇게 적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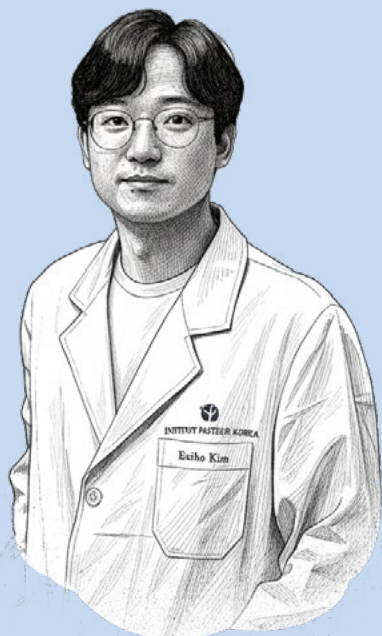
학부 시절, 처음 면역학을 접하며 다양한 세포와 분자가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정교하게 어우러지며 우리 몸을 방어한다는 사실이 신비로웠습니다. ‘놀라운 생명의 시스템을 더 깊이 알고 싶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백신이라는 의약품이 면역 원리를 이용해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낸다는 사실이 큰 울림을 준 것입니다.

지금은 루이 파스퇴르 박사가 세운 파스퇴르연구소 한국 분소인 ‘한국파스퇴르연구소’(경기도 성남)의 바이러스 면역 연구실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푸르른 고등학생 시절, 꿈과 친구만으로도 세상이 빛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동대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개교 초기 교수님들의 진심 어린 글을 읽었는데, 이상하리만치 설렘이었습니다. 한동대에 다니던 둘째 형을 만나러 학교를 찾은 1996년 어느 날, 기숙사에서 따뜻하게 맞아준 선배님들과 밤늦게까지 신앙과 꿈을 진지하게 나누던 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큰 고민 없이 수학능력 시험을 마치고 특차 전형(정시 이전 수능 성적과 면접으로 선발하는 제도)을 통해 97학번으로 입학했습니다.

졸업생 한 명 없는 신생 지방 대학, 부족한 시설, 재정난에 시달린다는 소문까지... 그러나 이상하게도 저와 동기들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밤 기숙사에서 야식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며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 특별한 환경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같은 이야기를 이어갔지요.



김의호는 97학번으로 생명식품과학부를 졸업했고,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및 에모리 대학교와 미국 국립보건원을 거쳐 현재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바이러스 면역 연구실 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동대의 특별한 제도—Honor Code, 무감독 시험, 팀 제도, 전원 기숙사 생활, 사회봉사과 워크 듀티—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배우고 살아간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묘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순진한 자부심이 인생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과 친하지 않았던 저는 자연스럽게 문과를 선택했습니다. 한동대에서도 국제어문학부나 상담심리학부에서 공부할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한동의 자유로운 전공 선택 제도는 저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같은 팀 친구와 선배의 영향으로 ‘일반생물학’을 수강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가장 싫어했던 과목이 저를 사로잡았지요. 결국 생명과학을 전공으로 선택하며 인생의 첫 번째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영어 강의, 외국어 교재, 낯선 과학 용어에 2학년 1학기 일반화학 시간에는 주간 퀴즈 점수가 10점을 넘기지 못하기도 했죠. ‘이 길을 가야 하나?’라는 자괴감이 밀려왔으나 친구들과의 스터디, 선배들의 도움, 교수님들의 격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인내하고 노력하면 꼭 해낼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저는 특히 두 과목에 매료되었는데요, 하나의 수정란이 수많은 세포로 정교하게 분화해 생명을 가진 존재로 자라는 과정이 무척 신비로웠어요. 인간의 몸이 병원체와 맞서 싸우는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시스템을 배우며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한동의 정신은 저의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면역 원리를 활용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연구자가 되기로 했지요. 학부를 졸업하고 모교에서 석사를 거쳐 해외 유학을 통해 박사과 박사 후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20여 년이 흐른 지금, 생명과학 연구자가 되어 감염병과 백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의 영역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그중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감염병과 백신 연구 분야에서도 기술적 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DNA, RNA, CRISPR 유전자 가위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 학부 시절, DNA가 몸의 설계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DNA가 중간 매개체인 mRNA를 만들고, mRNA가 단백질을 만들어 몸을 구성하고 움직이는 ‘중심 원리(central dogma)’를 배웠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DNA와 RNA가 교과서 속 개념이 아니라 인류의 생명을 구하는 실질적 도구로 자리 잡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실제로 다루며 새로운 치료제와 백신을 만드는 연구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은 오랜 세월 동안 축적해온 생명과학의 토대 위에 유전자 백신 기술이 완벽히 결합한 결과였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지만 신속하게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 대응한 사실도 감격스러웠습니다.

물론 놀라운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신기술로 만든 백신은 비쌀 수밖에 없었고,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감염병 대응이 자본 논리로 불평등하게 흐르며 백신의 보호막 없이 위험에 노출된 사람도 많았습니다. 거대 제약사들은 선진국에서 발생하지 않은 질병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국제기구, NGO, 헌신적인 연구자들이 소외 질환(neglected disease)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늘 다짐합니다. 과학의 시작점은 ‘사람을 향한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 과학자든 기업가든 행정가든 인류애적인 시선으로 공중 보건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서 변하지 않는 가치와 신앙을 지닌 과학자의 양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왜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 목적을 위해 일하지만, 일 그 이상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일은 세 가지 의미로 다가옵니다.

첫째, 우리 몸의 정교함을 탐구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을 찾는 일입니다.

둘째, 연구를 통해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셋째, 제가 배우고 익힌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입니다.

과학자의 일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연구를 계속하며 늘 새롭고 의미 있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생명과학, 특히 면역학에 빠져든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비록 박사과정을 거치며 면역학의 기초 연구에 매료되어 신약 및 백신 개발 같은 응용 연구와는 멀어졌으나, 돼지독감·에볼라·지카바이러스의 유행을 직간접적으로 겪으며 감염병의 위험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멈춰 세웠을 때 한동에서 품은 백신 연구의 꿈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날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지도 몰라.’ 교수님들의 열정적 강의와 따뜻한 관심이 인생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지적 성장뿐 아니라 영적 뿌리를 다질 수 있었지요.

저는 연구소에서 감염병과 백신을 연구하며,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한동에서 받은 사랑과 가르침을 갚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명과학의 길 위에서 세상의 필요에 대해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전하고 싶습니다.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한동에서의 배움이 어떤 힘이 되었나요?

한동을 졸업하고 20여 년의 시간을 걸으며 인생의 길림길마다 늘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속적 성공’을 위한 전략적인 길을 택할지,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한동에서 배우고 마음에 새긴 철학을 지킬지 고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삶이란 대학 시절에 생각한 것처럼 흑과 백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애매한 회색 지대에서 저를 버티게 한 뿌리는 한동에서 배우고 다진 꿈과 세계관이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바이오 스타트업 연구소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사람을 살리는 약을 개발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연구원들에게 폭풍우를 피하는 든든한 우산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지요.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달랐습니다. 연구원들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압박, 연구의 정직성과 객관성에서 벗어나는 현실에 좌절했습니다. 연구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연구 결과의 과대 해석과 과장된 홍보를 막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무력한 날이 많았습니다. 더 나은 치료법이 있는데도 지적재산권 혹은 재정적 한계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지요. 그때의 경험이 저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지금의 연구소에 이르게 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물들의 소식을 들곤 합니다. 좋은 소식에 기쁘다가도 좋지 않은 소식에 안타깝기도 합니다. 제가 만나는 학생들에게 면역학이 얼마나 흥미롭고 중요한 학문인지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과 연구의 즐거움은 물론 꿈과 고민도 나눕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학교를 떠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잊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따뜻하게 학생들을 품어주시던 김영길 초대 총장님, 면역학의 신비를 알려주신 송성규 교수님과 여러 수업에서 만난 교수님들, 팀과 동아리(성가대, H밀란)에서 울고 웃었던 이들이 보고 싶습니다. 고학년이 되어 전공 과목을 공부하는 게 어려워지자 함께 공부하며 나보다 서로를 위한 그 시절이 아직도 그립습니다.

쓰쓸하지만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며 얼떨결에 학부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후배의 어머니가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을 찾아 위로하자는 학우들의 의견이 모였습니다. 학부 대표로서 교수님께 수업 휴강 및 결석 처리를 부탁드렸는데, 평소 따뜻하시던 교수님께서 뜻밖의 답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이어도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고, 정해진 규칙은 공정하게 지켜야 하

며, 진정한 우정이란 친구를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이 지금도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한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한동에서의 지난날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동의 모든 가족이 같은 꿈을 꾸고 동고동락하며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비전을 현실로 승화시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서른 살 생일을 맞은 한동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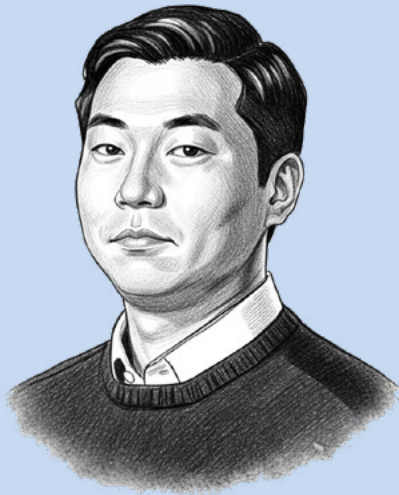
세상은 인터넷과 SNS 알고리즘이 만든 확증편향의 굴레 속에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배척하고, 편을 나누어 혐오를 쏟아냅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다를 겁니다. 자식의 N극과 S극처럼 서로를 밀어내는 세상 속에서 한동은 그 틈을 메우고 회복하는 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본질과 비본질, 진리와 진리를 가장한 교묘한 거짓을 지혜롭게 분별해내야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병든 세상을 사랑과 정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염과 찌꺼기를 품는 바다처럼 세상을 감싸고 치유하는 너른 품을 지녀야 합니다. 한동은 우리의 영적 고향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하며 애쓰는 한동인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동 후배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한동은 특별한 곳입니다. 같은 비전과 신앙을 품은 스승 및 친구와 함께 든든히 성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은 입학 성적과 학점으로 줄을 세웁니다. 취업률이 대학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한동은 다릅니다. 한동을 선택한 후배분들도 세상의 ‘성공’이 아닌, 다른 가치를 위해 선택했을 겁니다. 그 용기가 한동의 진정한 힘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경쟁하기 위해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왜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깊은 배움이자 선물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어요.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조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큰 꿈을 꾸세요.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외쳤던 문장의 의미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좋은 편’을 선택하는 용기, 정진영



정진영은 97학번으로 전산전자공학부를 졸업했고, 현재 미국 시애틀에 있는 ‘오라클’에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팀의 디렉터로 일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를 졸업한 97학번 정진영입니다. 현재 미국 시애틀에 거주하며, IT 기업 ‘오라클(Oracle)’에서 Director of Product Management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의 AI Data Platform 제품을 담당하는 업무인데요, 제품 전략과 가격 정책, 기능 우선순위, 마케팅 전략 등을 수립하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팀을 이끌고 있어요.

프로덕트 매니저는 기술과 고객 및 시장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요, 기술이 고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정의하고, 실제 제품으로 실현하는 전 과정을 조율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와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일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오라클에서 기술 컨설턴트로 근무하며 미국 본사에서 출시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버전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 같으면 이 기능을 이렇게 만들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의 단순한 의문이 커리어를 바꾸었지요. ‘이런 결정을 누가 내릴까?’라는 궁금증을 따라가다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글로벌 본사에서 제품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후 MBA를 마치고 미국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시절에는 구체적으로 직업의 그림을 그리지 않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며 무심코 넘기지 않은 작은 호기심, 선택과 도전, 성공과 실패 경험이 지금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의 영역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그중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AI와 클라우드 기술은 제품의 정의, 가치, 시장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한가운데에서도 저는 ‘사람 중심의 기술’이라는 원칙을 붙잡고 있습니다.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업무 본질에 대한 탁월함, 정직, 공감과 존중’ 또한 중요한 가치입니다. 아무리 혁신 기술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가치를 지닐 수 없습니다. 설령 이해 하더라도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역량이 없다면 진정한 가치를 실현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세상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고 섬기기 위한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목적을 위해 일하지만, 일 그 이상의 존재 이기도 합니다.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고, 팀원 및 다양한 팀과 함께 목표를 이루는 성취감이 곧 기쁨입니다. 프로덕트 매니저먼트 팀을 관리하며 복잡한 문제를 정의하고, 사람들과 협업하며, 전략적 판단을 내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내일 수많은 사람이 이 방향을 알았을 때 옳은 선택이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나침반으로 삼습니다. 저에게 일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닙니다. 저의 재능과 역량을 세상 속에서 발휘하고 나누는 기회입니다.



공부의 본질은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과정과 방향, 그리고 깨달은 진리를 붙잡으세요.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한동에서의 배움이 어떤 힘이 되었나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보람을 느끼지만, 그 중에서도 2025년 오라클의 전략 제품으로 선정된 ‘AI Data Platform’을 세상에 공개했을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품 전략서를 작성하고, 2년여 개발을 함께 한 제품 인지라 더욱 의미가 있었지요. 회사의 연례 콘퍼런스 키노트에서 회장이 제품을 소개하고, 수많은 고객과 애널리스트가 관심을 보였을 때 직원들과 함께 한 고된 노력이 감사로 바뀌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도전도 많았습니다. MBA를 졸업하고 AWS에서 근무하며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요. 일하면서 배울 점도 많았으나, 이미 널리 사용되는 제품을 관리하는 일이 즐겁지 않더라고요.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직을 결심했는데, 많은 이가 만류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Do not be

afraid)”는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도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결정이 커리어의 전환점이 되었죠. 한동에서 배운 ‘두려움 없는 도전’과 ‘하나님께 맡기며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저의 선택을 지탱해주었습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한동에서의 삶은 졸업 전과 후로 나뉩니다. 학업에 충실하지 못했던 시절에도 용환기 교수님과 성금영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며 격려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인내와 신뢰가 큰 힘이 되었지요. 또 졸업 후 유학길에 올랐을 때는 홍참길 교수님과 가족분들이 ‘한동 선배’라는 이유만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낯선 미국 환경에서 쉽게 정착할 수 있었지요. 이러한 감사함을 통해 한동이 단순히 학문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이어진 공동체임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30년, 한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AI 시대에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이 지켜온 사랑, 정직, 학문의 탁월함은 그보다 더 큰 가치입니다. 학생들이 실패와 방향을 겪어도 따뜻하게 보듬고, 피상적 가치가 아닌 본질을 향해 몰입하는 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학문의 경계와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에 한동의 학생들이 수준 높은 실무 경험을 쌓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지역의 한계를 넘어 보다 많은 학생이 실제 현장에서 배우고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한동 후배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학점, 스펙, 자격증 등 대학에 다니며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공부의 본질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누가복음 10:41~42)

공부에도 ‘좋은 편’을 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과보다 과정, 속도보다 방향, 외운 지식보다 깨달은 진리를 붙잡으세요. 세상은 빠르게 변해도 진리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실 겁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반드시 사용하실 겁니다.

간절한 사람과 일하며 교육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최재웅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97학번 최재웅입니다. 국제어문학부에서 영어통번역을 전공으로 공부했고, 경영경제학부에서 국제경영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지금은 교육 기업 ‘폴앤마크(Paul & Mark)’의 대표이사로 일하며,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세바시)’ 연구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아버지의 사업이 엄청나게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미국 유학(정치대학원)을 준비하다가 멈춰야 했을 만큼 최악의 순간이었어요. 무엇이라도 해야만 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의 절망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기 제1회 전국 프레젠테이션 대회(Microsoft, 동원증권, YBM 주최)에서 금상을 수상했어요. 국무총리배 전국 토론 대회에서도 3등에 해당하는 국무실장상을 탔고요. 대회를 마치고 저에게 수상의 기쁨을 안겨 주신 모든 심사위원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그중 한 분이 저를 채용해주셨어요. 인생의 첫길, 커리어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의 영역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그중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AI와 로봇, 특히 AI가 교육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이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원칙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누군가 변화하는 세상에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는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교육으로 세상을 바꾸기, 그리고 간절한 사람과 일하는 걸 꿈꾸는 일”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 목적을 위해 일하지만, 일 그 이상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최재웅은 97학번으로 국제어문학부/경영경제학부에서 통번역 및 국제경영을 복수 전공했고, 현재 교육 기업 ‘폴앤마크(Paul&Mark)’ 대표이사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세바시)’ 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세상을 바꾸는 한동인이 되세요.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한동에서의 배움이 어떤 힘이 되었나요?

일의 어떤 순간을 보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보람이니까요. 저는 의미 없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드문드문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보람을 가져다주지 않는 일은 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한동에서의 배움은 늘 제 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배움이 지금의 나를 만든 건 아닐지라도 한동에서의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믿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을 꼽는다면 ‘신념’입니다. 한동인이 품고 있는 신앙, 신념, 비전. 이것이 한동에서 배운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의 얼굴이 떠오르네요. 그래도 결국 가족이겠죠. 이 자리를 빌려 늘 곁에서 저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아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30년, 한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오래된 믿음을 바꾸는 담대하면서도 순수한 선배들의 선포가 끝없이 이어지는 대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적을 이루는 대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동 후배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한 선배님의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문장으로 제 마음 깊숙이 자리했거든요.

“위대한 학자가 되고 싶다면 서울대로 가라. 위대한 과학자가 되고 싶다면 포항공대로 가라.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한동대로 와라.”

이 말보다 더 큰 단어를 찾을 수 있을까요. 허언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청년의 포부이자 하나님을 향한 선포 아닐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 없는 한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동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세상을 바꾸는 한동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God's University, Global University, 김형우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98학번 김형우입니다. 당시 산업정보디자인학부, 지금의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에서 시각디자인과 제품디자인을 복수 전공하고, 부전공으로 전산을 공부했어요. 소규모 웹·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회사, 네이버 브랜드 관리 및 디자인, 제이오에이치(JOH)라는 독특한 회사에서 브랜드 컨설팅 및 자체 비즈니스 론칭을 하다가 2015년부터 '클레이(cl-ay.com)'라는 브랜드·디자인 컨설팅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원으로도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유달리 음악을 좋아하는 가족을 둔 가장이며,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 일을 시작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디자인'이라는 걸 전공하겠다고 미술 학원을 찾았습니다. 야간 자율 학습이 싫어서 디자인을 시작했다고 농담하는데, 절반은 사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만드는데 관심이 많았어요. 디자인이 무엇인지는 몰랐으나 지나고 보니 '대량생산된 브랜드 제품과 로고'에 매력을 느낀 거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나만의 취향을 반영한 음악 앨범 재킷을 만들거나, 관심 있는 브랜드의 로고를 따라 그리며 놀았으니까요.

컨설팅 서비스는 대학에 다니며 이은종 교수님과 진로를 상담하며 처음 알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 어렵듯이 알고 있는 역할을 말씀드렸더니 "컨설팅에 가깝구나"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느덧 23년 남짓 비슷한 일을 해왔네요. 다행히 '다른 일을 하는 게 나았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재미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이것밖에 못 하나'라는 생각이 항상 들지만요.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의 영역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그중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디자인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특히 기술 변화와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이고요. 그러다 보니 시가 가장 큰 변화일 듯해요. 모든 영역이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점을 느낍니다.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는 아직 시가



김형우는 98학번으로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에서 시각디자인과 제품디자인을 복수 전공했고, 현재 브랜드·디자인 컨설팅 기업 '클레이'를 창업해 운영하고 있다.

파괴적 변화를 몰고 오지는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과 사고방식을 무섭게 바뀌어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인간의 고유성, 정체성, 창조성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 여기고 그 가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로 망한 인류가 다시 일어나 과학과 기술을 통제하는 내용의 소설 《들텐》을 좋아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PC, 인터넷, 스마트폰, AI, 휴머노이드 등을 모조리 겪으며 적응해야 하는 우리 세대가 저주받은 것 같다가도 다른 시선으로 보면 스펙터클하면서 재미있는, 흔치 않은 세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늘 적당한 새로움을 필요로 하는 종족이니 우리 아이들과 그 후손들도 인간성과 새로움을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우리는 여러 목적을 위해 일하지만, 일 그 이상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다행히도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인생에서 일의 비중이 너무 큰 건 아닌가?’를 간혹 고민하기도 합니다. ‘일하는 시간을 줄여 가까운 사람들을 잘 챙겨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길을 찾아 걷는 일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며,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믿어요.

디자인과 브랜딩은 깊고 넓은 분야라 쉽게 질리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브랜딩 회사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한동에서의 배움이 어떤 힘이 되었나요?

고객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그들의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잘되는 것이 중요하죠. 동시에 함께 일하는 주니어(후배)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데서 보람을 느낍니다.

돌이켜보면 클레이를 시작하고 6~7년 동안 참 평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았는데, 그 이후 저를 비롯한 모두가 위기를 잘 버티고 극복하는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에서의 배움 덕분에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내 길을 가는

것의 의미를 일깨워준 시간이었습니다. 이 업계에 몸담고 있는 한동 동문을 만나고 교류하며, 함께 일하는 것도 큰 힘이 되고요.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공감하는 분이 많으실 텐데) 시험 기간 도서관에서 나를 안아주셨던 김영길 총장님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개교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동의 정체성을 확립해준 초대 총장님께 늘 감사합니다.

학부의 김공웅 교수님, 이명구 교수님, 이은종 교수님, 이진구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참스승이셨어요. 이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먹고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한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Handong! God’s University, Global University’.

첫 출발부터 지금까지 여정을 지켜준 한동의 세계관과 고유한 문화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학교에 다니며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인재가 되자”는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그 말처럼 끊임없이 정진하는 한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편중이 극심한 이 나라에서 수도권에 있지 않아도 상관없는 독보적인 학교, 한국에 근거를 둔 세계를 위한 학교가 되길 늘 바라고 응원합니다.

한동 후배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개교 30주년을 맞은 한동에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다른 어떤 학교는 응원가 가사로도 쉽게 잘하더군요). 한동을 생각하면 늘 빛진 느낌입니다. 부모의 사랑이나 회사 사장의 고민처럼 시간이 지난 후에야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며 한동이 가르쳐준 ‘배워서 남 주자’를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훌륭한 한동 후배들을 위한 응원을 이 말로 대신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뿐인 고유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길을 걸어가세요.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고유성, 정체성, 창조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 안병호·오정민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9학번 안병호, 98학번 오정민입니다. 캄보디아에서 13년 차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병호는 희망의 노래 공동체(교회, 교육 센터, 기숙사) 사역을 담당하고, 오정민은 호프 인터내셔널 스쿨(MK 스쿨)에서 ELL 코디네이터와 한국어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대학 시절부터 선교사에 대한 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중국 연변과학기술대 교환학생 시절, 탈북자 공동체에서 2주간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통해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내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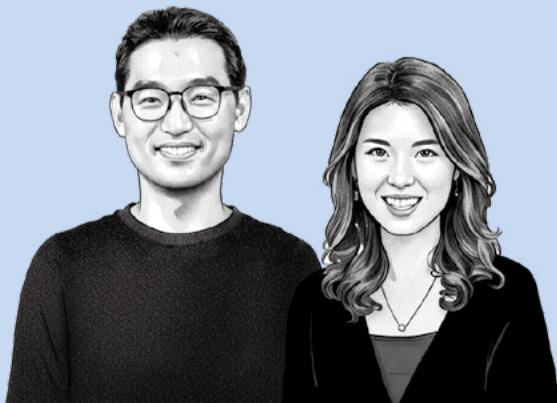
그 이후 목회자로, 영어 교사로 훈련받은 저희는 2012년 청주 옥산교회의 파송 선교사로 캄보디아에 왔습니다. 선교지에서도 각자의 은사에 따라 공동체를 세워가길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의 영역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그중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선교지에서도 기술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첫째, 접근성입니다. 다양한 통신 기술의 발달로 영상 통화가 수시로 가능해지면서 현지 상황과 형편을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언어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부분입니다. AI 또는 번역 기술 발달을 통해 현지어를 쉽게 익히고, 문서도 손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의 삶은 '현지 문화'와 '현지 언어'에 결속(bonding)되어야 합니다. 통신 기술의 발달로 고국의 다양한 상황을 접하며 마음이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다거나, 기술 발달로 번역 및 통역이 가능하다고 해서 언어 습득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는 단순한 기능이 아닌, 삶과 인격으로 자신의 존재를 현지에 두어야 합니다. 기술의 발달이 고국과 선교지의 상황을 변화시켰으나, 선교지를 중심에 두는 원칙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안병호·오정민은 99학번과 98학번으로 경영경제학부와 국제어문학부를 졸업했고, 각각 목회자와 영어 교사로 훈련받고 현재 캄보디아에서 13년째 선교사로 섬기고 있다.

하나님과 우리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목적을 위해 일하지만, 일 그 이상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선교사로 살아가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진행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에 큰 영향을 끼친 성공한 프로젝트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성공이 선교사의 성공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은 행위가 아니라, “이곳의 영혼을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의 답입니다. 인내하고 사랑하기,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며 늘 도전받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처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한동에서의 배움이 어떤 힘이 되었나요?

캄보디아 친구들과 현지어로 영적 교감을 나눌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현지어로 복음을 전하고, 영적 도전을 안겨줄 때 기쁨과 감사를 누립니다. 물론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많습니다. 사역 초기, ‘선교를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지나쳐 잔뜩 힘이 들어간 때를 돌아봅니다.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던 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을 동역자로 보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찾아왔고, 저희의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순종과 신뢰의 여정’이라는 한동에서의 배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자연대 4층 기도실에서 기도하던 나날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갑니다. 한동에서 만난 믿음의 동역자를 떠올리며 주변에 도움을 구하고 상담도 받았습니 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희 두 사람을 회복시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즐겁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면접을 위해 처음 방문했을 때입니다. HD 광장에서 선배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숙사 3호관에서 처음 만난 지원자들과 누린 낯설지만 따뜻한 분위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스피커를 통해 흐르던 방송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한동의 선배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려 합니다. 광장으로 나오세요.”

잔뜩 긴장된 마음으로 조용히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겨울밤, 면접에 참석한 우리를 위해 두꺼운 파카를 입고 기타를 치며 찬양하고 기도해주던 선배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건넨 첫마디를 잊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려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한동대학교가 단순한 학교를 넘어 ‘공동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도 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저(오정민)는 프레이즈 팀으로 예배를 섬기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배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격려와 위로 및 은혜가 삶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한동에서 드린 예배의 감격은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는, 삶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그 자리,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솟아나곤 합니다.



앞으로 30년, 한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한동은 세속적 ‘탁월함’을 넘어서야 합니다. 마이클 호턴은 “탁월함이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께 하듯 진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이 추구하는 능력은 학문적 성취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입결(입학 성적)이 최고가 아니더라도 한동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정직을 훈련하는 ‘아너 코드’, 공동체 정신을 배우는 ‘팀 제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영성을 배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임을 깨닫습니다.

한동에서 배우는 영성은 하나님과 우리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 없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고민한 만큼 사람을 고민했는지... 아쉬움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동 후배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HD 광장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준 선배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대학’ 한동은 우리의 근간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응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자부심이 되어줄 수많은 선배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대학’이 해야 할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이재우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정보디자인학부(현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98학번 이재우입니다.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디자인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어릴 적부터 자동차나 카메라 같은 제품을 상상하고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자연 계열에서 공부하면서도 ‘카메라를 디자인하고 싶다’는 구체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꿈을 품었습니다.

자칫 소망에 그칠 뻔한 그 꿈은 자율 전공 입학이 가능한 한동대에 진학한 덕분에 현실로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한동대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졸업 과제로 카메라를 디자인했으며, 회사에 들어와 20년 가까이 제품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적성도 맞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운도 좋았습니다. 물론 누구나 그렇듯이 일이 고될 때면 저의 선택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한 우물만 팔게 아니라 다양한 삶의 방식을 찾을 걸 그랬나...’ 아쉬워하다가도 AI 혁명이 시작된 지금, 새로운 꿈을 꾸자고 다짐하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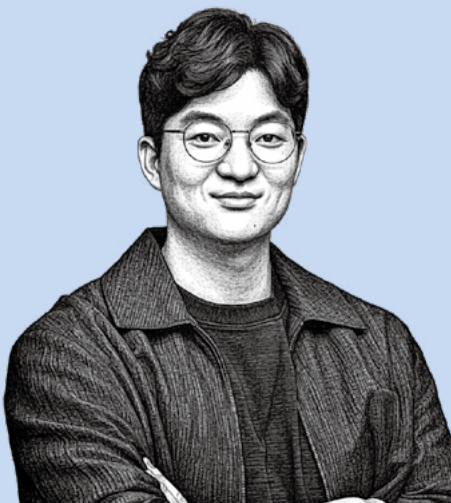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의 영역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그중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덜치만 큰 대기업보다 1인 기업이 더 큰 성과를 내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부서도 예전보다 2~3배 빠른 속도를 요구받고 있는데요, 내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걱정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됩니다.

AI 시대는 인간적인 매력에 더욱 빛을 발할 겁니다. 바른 자세와 태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능력, 24시간 일만 하는 AI와 달리 잘 놀고 쉴 수 있는 좋은 취향이 AI와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목적을 위해 일하지만, 일 그 이상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멋진 비전과 삶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저 하루를 버티는 데 급급한 게 현실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길



이재우는 98학번으로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를 졸업했고, 현재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디자인팀에서 일하고 있다.

렀다면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아니면 글로벌 경쟁에 몰두하다 보니 버거워졌을까요? 답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무실에서 함께 고생하는 동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품을 허락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일정한 소득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기독교 콘텐츠를 만드는 웹툰 플랫폼과 잘못된 언론 환경을 바로잡는 시민단체에 후원합니다. 대통령이 허튼짓을 하면 촛불과 깃발을 들고 광장에 나갑니다. 소소하지만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한동에서의 배움이 어떤 힘이 되었나요?

가전제품을 디자인하는 일은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튼튼한 세탁기는 사용자의 육체노동을 대신해 그만큼의 여유를 가져다줍니다. 잘 디자인한 냉장고는 주방 분위기를 바꿔주고, 성능 좋은 오븐은 가족을 위해 효율적으로 요리하게 해줍니다. 한동에서 배움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헌신적이고 뛰어난 교수님 덕분에 실무적인 전문성을 갖추었고, 다양한 팀원과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며 모난 부분을 다듬어 둥그런 사람으로 사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입학 전, 면접을 마치고 본관을 구경하는데 신문에서만 보던 김영길 초대 총장님과 마주쳤습니다. 총장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제게 다가오셔서 “밥 먹었느냐”며 머리를 마구마구 쓰다듬어주셨죠. 총장님 소매에 붙어 있던 밥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동에서 배운 것들로 지금까지 먹고살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을 가르쳐주신 교수님, 함께 사는 법을 알려준 동기들에게 늘 감사합니다. 총장님을 비롯해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진심으로 학교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실감하며 한동에서의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말이지 특별한 대학 생활이었습니다.

앞으로 30년, 한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전문성도, AI 혁신도, 글로벌 경쟁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류가 고대와 중세의 차별적인 인간관을 부수고 현대 문명을 이룬 원동력은 ‘모든 인간은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본질적으로 동등하고 존엄하다’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 덕분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위엄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대학’이 해야 할 일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한동 후배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98학번으로 입학했을 때 선배들이 “드디어 한동에도 1, 2, 3, 4학년이 다 생겼다”고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위태로운 신생 대학이었던 거죠. “이러다 학교가 없어지는 거 아냐”라고 말할 만큼 위기도 많았고요. 그 어려움이 한동의 30년을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AI 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아무도 앞날을 모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와 같은 선배 세대의 전망은 존중하되 참고만 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결국 후배 세대의 생각이 옳을 테니까요. 건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의 삶을 이웃에게 기꺼이 선물할 수 있는 한동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AI 시대, 선배 세대의 전망은 존중하되 참고만 하세요.
결국 여러분의 생각이 옳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세요, 조관희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정보디자인학부(현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를 졸업한 98학번 조관희입니다. 당시 H밀란 동아리 소속으로 운동장에서 축구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아한형제들’에서 UX실을 이끌고 있으며, 집에서는 네 아이의 아빠로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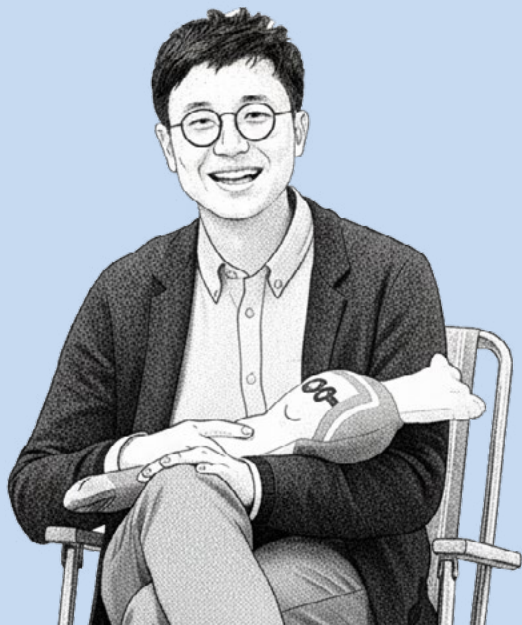
저는 따로 미술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냥 컴퓨터를 좋아하는 이과생이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한동대에 입학했고, 무언가를 정리하고 엮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일을 좋아했어요. 그 일과 가장 비슷한 영역이 디자인이라 생각했고, 2학년 때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졸업할 무렵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어요. 전혀 섞이지 않을 것 같은 온라인 세상과 인간의 삶이 통합된 새로운 세상이 형성되는 모습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온라인에서 뉴스를 읽고, 온라인 공간에서 친구를 만나 대화하고, 기술과 감각적인 그래픽이 만나 생소한 경험을 안겨주는 등 많은 것이 순식간에 변화했죠.

그때 저는 기술과 사람, 둘 사이의 접점을 주목했어요. 인터페이스(interface), 그 접점을 잘 만드는 데에서 디자이너의 역할을 찾았습니다. 그 접점을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사용자의 삶이 변화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소셜 미디어, 뉴스, 자동차, 가구, B2B 사업 등 일의 영역은 변화했어도 ‘접점’을 고민하는 사람의 역할은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은 ‘배달’이라는 영역에서 기술과 사람의 접점을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의 영역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그중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기술이 삶을 바꾸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삶의 가치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서로 돕고 신뢰를 쌓는 가치는 늘 유효할 거라고 봅니다. 이는 일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문제를 정의하거나 성과를 평가할 때 숫자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일상·관계·감정에 미치는 영향 같은 ‘사람



조관희는 98학번으로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를 졸업했고, 현재 배달의민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 UX실 이사로 일하고 있다.

이어서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대상화하지 않고 '사람'으로 보는 관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효율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 사람보다 효율을 중시하게 되니까요.

우리는 여러 목적을 위해 일하지만, 일 그 이상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이른바 주니어 시절에는 일에 의미를 많이 부여했어요. 내가 왜 일하는지, 내 일에 어떤 의미를 담아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지요. 그러나 지금은 일 자체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일은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게 많아지더라고요. 이제는 인생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가족, 실속 없는 이야기를 올려도 일일이 반응해주는 대학 동기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뛰는 아침 조깅 등 일 외에도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왜 일하는지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생계유지 외에도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닐까요.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한동에서의 배움이 어떤 힘이 되었나요?

얼마 전, 한동대 후배가 회사에 입사했어요. 제가 몸담은 회사보다 나아 보이는 회사에 갈 수 있었는데 저희 회사를 선택했다는 점이 의외였어요. 대화를 나눠보니 지난해 산학 협력을 하면서 제가 리드하는 부서와 함께 일한 경험이 참 좋았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학생들의 결과물에 진심으로 의견을 남기는 모습이 마음에 남아서 입사를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순간 기분이 좋았습니다. 동시에 '내가 일하는 매 순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서 늘 들었던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거창한 외침이 아니더라도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매 순간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 딱히 모범생도 아니었고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때 배운 밀천으로 디자인이 필요한 조직에서 누군가를 돕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 감사한 일이 아닐까요.

앞으로 30년, 한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2003년에 졸업했으니 어느덧 20여 년이 지났네요. 민망하지만, 졸업 이듬해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학교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4년간 학교에서 배운 게 너무 많아서 갚아야겠다는 마음으로요. 한동이 명문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욕심을 부린다면 학교가 탁월한 인재를 길러내어 암울한 세상을 반짝 반짝 빛나게 하는 세계적 명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 기후 재난,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동 후배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세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한 명 한 명의 후배를 위해 많은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시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즐기는 멋진 후배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술과 사람의 접점을 주목합니다. 일상, 관계, 감정 같은 사람이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에녹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98학번으로 언론정보문화학부(현 커뮤니케이션학부)에서 공부한 정용훈입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뮤지컬 배우와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학창 시절에는 노래하는 사람이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공 분야로 진출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중에서도 연출에 관심이 많았어요. 학부 때부터 CF 조연출 등 연출을 준비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찬양팀 창단 멤버로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결국 이곳에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해 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뮤지컬 오디션에 참여했는데, 첫 번째 오디션에서 합격하며 뮤지컬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참여한 뮤지컬 오디션이 배우와 가수로 살아가게 해주었습니다. 그 후 5~6년간 무명 배우로 활동하며 대중에게 주목받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럼에도 열매 없이 지낸 시절을 낙심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힘은 한동에서 배운 개척 정신이었습니다.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의 영역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그중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저는 노래하고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의 발전을 체감하기보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존귀함이 작아지는 상황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다행히 한동에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과 공동체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운 시간이 무대에 오르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나를 빛내기보다 배우들이 함께 협력해 하나의 무대를 완성하는 일을 소중히 여깁니다. 솔로 가수로 무대에 설 때에도 가수 에녹보다 행사를 빛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여러 목적을 위해 일하지만, 일 그 이상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무대에서 연기하고 노래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에녹(본명 정용훈)은 98학번으로 커뮤니케이션학부에서 공부했고, 현재 뮤지컬 배우와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지어주셨고, 각자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기쁘게 누리는 것 자체가 찬양입니다. 무대에서, 행사에서, 방송에서 기쁘게 노래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일정으로 피곤하고 고단할 때도 있지만, 감사와 행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리하고자 노력합니다. “왜 일하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삶에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한동에서의 배움이 어떤 힘이 되었나요?

뮤지컬 배우와 가수로 활동하며 제 노래를 통해 관객에게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삶의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분들이 위로받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일상의 고단함에 지친 분들이 노래를 통해 잠시나마 웃고 심을 얻었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제대로 실천했다는 감동이 밀려오곤 합니다.

학창 시절에 무엇을 하며 먹고살아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청년 시절의 고민을 크리스천 문화로 가득한 한동에서 보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한동에서 만난 김영길 초대 총장님과 김영애 사모님, 구자훈 교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한동의 교수님들은 단순히 지식 전달자가 아닌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신 믿음의 본이셨어요. 김영길 초대 총장님께서도 평범한 학생이던 저를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주시며 “사랑한다, 축복한다, 귀하다”며 아껴주셨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배우와 가수로 기나긴 무명의 시간을 보낼 때 총장님의 축복이 자존감을 지켜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구자훈 교수님이 진솔하게 나눠주신 삶의 고민을 통해 저 역시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30년, 한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저는 신앙이 좋아서, 또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자녀여서 한동에 진학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한동에서 배우고 들으며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한동의 총명한 크리스천 문화 속에서 가장비에 옷 젖듯 신앙을 키워나갔으며, 세상에 나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동이 개교 이념 그대로 순수 복음을 지향하는 크리스천 사학으로 굳건히 남아 있길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자발적 팔로워’의 삶을 선택하는 한동인을 많이 배출하길 소망합니다.

한동 후배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한동의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한동에서 사랑과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 지금도 1년에 한두 번씩 학교를 찾습니다. 포항에 내려가 교정을 걷다 보면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처럼 따뜻한 위로를 받아요. 언제나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는 한동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도 한동에서의 삶을 맘껏 누리고 위로받길 바라요. 세상에서 살다가 지칠 때 언제든지 찾아가도 따뜻하게 안아주는 고향 같은 학교가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각자의 자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없어요, 문성욱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정보디자인학부(현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99학번 문성욱입니다. 현재 블라인드라는 서비스를 만드는 '팀블라인드'의 창업자이자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대학에 입학했던 1999년은 닷컴 버블로 온라인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우연히 시작한 일이 재미있어서 몇 차례 휴학을 반복하다가 본격적으로 업계에 뛰어들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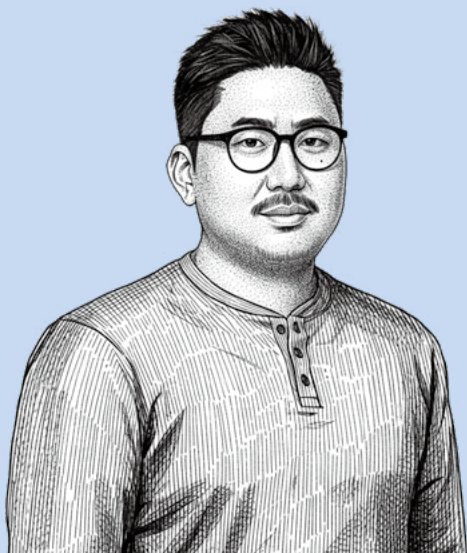
디자인을 전공하며 사용자 관점에서 제품을 만드는 능력을 키웠고, 동시에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면서 서비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반적 과정에 흥미를 느껴서 자연스럽게 창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비록 전공과 직접적 연관은 없었으나,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 꾸준히 탐색하고 노력한 결과 지금의 위치에 이르게 됐습니다.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의 영역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그중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인터넷 서비스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도 지금 우리가 AI를 맞이하는 만큼이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던 상거래가 온라인으로 옮겨갔고, 금융 활동과 콘텐츠 소비 및 정보 활용 방식 등 모든 것이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AI가 세상을 다시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머무는 미국은 AI가 만드는 변화의 폭이 더 크고 빠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기업이 AI로 사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털도 인력 구성이 좋은 회사보다 AI를 활용해 빠르게 제품을 개발하는 소규모 팀에 투자하고 있지요. 투자를 받지 않고 AI만으로 소규모 사업을 시작해 빠르게 성장하는 팀도 늘었습니다.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사람과 회사 능력이 정의되는 시대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도 10명이 필요한 일을 5명으로 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격변의 시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세상의 흐름에



문성욱은 99학번으로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를 졸업했고, 현재 블라인드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 '팀블라인드'의 창업자이자 대표로 일하고 있다.

뒤처지고, 결국 모든 걸 잃고 맙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을 부정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날마다 스스로를 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목적을 위해 일하지만, 일 그 이상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먹고살기 위해 일합니다. 일을 통해 나와 가족의 삶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영위하고, 삶을 즐겁게 만드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지요. 이렇게 먹고살기 위해 일하는 건 당연하고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 이상의 무엇이 없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먹고사는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압박하면 오히려 삶이 괴로워지고, 괴로운 상황을 버텨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깁니다.

일이란 반드시 고귀한 목적과 목표나 인생을 꿰뚫는 비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행복하면 됩니다. 일은 행복을 위해 존재합니다.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한동에서의 배움이 어떤 힘이 되었나요?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인을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는 직장인의 목소리를 통해 직장 문화를 바꾸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12년간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장 문화를 바꾼 사례가 많습니다. 부정한 일이 시정되고, 회사가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기업이 생각하는 기업 문화와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피부로 느끼는 문화의 간극이 좁아졌습니다. 처음 목표한 대로 서비스가 활용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와 보람을 느낍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자금 위기, 외부 기관과의 갈등, 몸과 정신이 무너져 내리는 일을 수없이 겪다 보니 어느새 12년이 지났네요. 그때마다 한동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배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가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몸으로 배운 시간이었어요. 한동에서의 어떤 수업보다 소중한 배움이었습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12년 전 사업을 시작하며 월급도 없이 동참해준 공동 창업자들,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월급도 적은 회사와 함께해준 초기 멤버들에게 늘 감사합니다. 좋은 회사에서 좋은 보상을 받고 있었는데도 ‘모두가 실패할 거라고 했던’ 일을 함께 시작해주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30년, 한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이 구석진 곳까지 대학에 오는 이상한 사람이 나 말고 또 있을까 생각했는데, 벌써 30년이 되었다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한동의 후배들이 전공에 몰두하지 않고 큰 그림을 그리길 바랍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고민하지 말고 본인이 이루고 싶은 일, 변화시키고 싶은 문제를 고민하세요. 그 일을 해내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후배가 나의 전공이 미래에 어떤 쓰임이 있을까 고민하리라 생각합니다. 특정 전공에 몰두하는 일이, 아니 어쩌면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나 고민하지 마세요.
스스로 이루고 싶고, 달성하고 싶고, 변화하고 싶은 일을 찾으세요.

모든 전공이 의미 없을지도 몰라요. 단순히 하나의 전공에 몰두하기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길러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그 일을 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신감과 도전 정신, 끊임없는 시도가 필요하지요. AI를 수족처럼 다루는 수준이라면 동업자 없이, 전공자나 경력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제 기업들도 특정 전문 포지션 혹은 제너럴리스트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어떤 스킬을 갖고,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직업이나 업무의 전문 영역과 관계없이 내가 이루고 싶고, 달성하고 싶고, 변화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내는 데 필요한 과정과 자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세요. 그 일을 해내기 위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여 학교가 세상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원하는 것을 요구하세요. 학교에서의 배움과 관계없이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찾아서 서로 성장하고 돕는 관계를 많이 만드세요.

한동 후배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팔란티어에서 인턴 하는 게 대학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얼마 전 팔란티어가 인턴 채용 마케팅에 사용한 문장입니다. 딱히 반론하기 어려운 문장 아닌가요. 대학의 존재 의미가 의심받는 시기입니다. 모든 대학이 이 질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한동의 미래는 기존의 커리큘럼과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적 변화를 이루는 학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동의 후배들도 끊임없이 요청해야 합니다. 동시에 학교가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해나가야 합니다.

한동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다음 30년을 축하하기 위해 미래를 위한 한동의 결단이 따르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람과 브랜드를 연결하는 다리, 이승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경영경제학부를 졸업한 99학번 이승오입니다. 경영과 영어를 복수 전공하고, 유니레버 코리아에서 도브 브랜드 매니저로 일하다가 영국 본사 근무를 거쳐 삼성전자로 이직해 가전 사업부에서 브랜드 전략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네스프레소 코리아'로 이직해서 마케팅 총괄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처음에는 경제학을 전공하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못해서 '경제학 개론'을 수강할 수 있을까 걱정했거든요. 개론까지는 어찌어찌 따라갔는데, 미시경제 수업을 들으면서 딱 각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D+ 학점을 받아 들고 '경제 쪽은 아니구나' 깨닫고, '숫자' 없는 곳을 찾아 해매다가 영어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경영에서도 숫자를 가까이하지 않는 쪽이 어디일까,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곳을 찾다 보니 마케팅을 만났고, 이후 쪽한 우물만 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회사든 마케팅 부서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대학 시절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에게 잘 맞는 분야를 확인하고 검증한 덕을 톡톡히 본 셈입니다.

어느덧 20년간 마케팅을 해오며 '마케팅 전문가' 소리를 듣는 위치에 섰습니다. 스스로 전문가가 맞는지 늘 의심하며, 통찰력과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의 영역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그중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AI는 마케팅도 바꾸고 있습니다. 많은 일이 자동화되고 있지요. 마케팅 전략, 크리에이티브 캠페인 등 AI 없이는 일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질문과 의사 결정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왜 이것을 선택했는지, 선택한 일을 실행하는 존재는 인간입니다. 물론 어느 개인의 의사 결정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브랜드의 의사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브랜드는 명확한 목적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의사 결정을 모아



이승오는 99학번으로 경영경제학부/국제어문학부에서 경영과 영어를 복수 전공했고, 현재 '네스프레소 코리아' 마케팅 총괄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해요. 당장 수익이 된다는 이유로,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내린 결정은 장기적 관점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브랜드의 목적이 명확하다면 AI 시대에도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은 결국 인간의 몫이 될 겁니다.

우리는 여러 목적을 위해 일하지만, 일 그 이상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길러내기 위해, 그리고 생계를 위해 일하지만 반드시 그것만을 위해 일하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일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리(bridge)’로 쓰시려고 부르셨어요. 다리는 곧 연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브랜드와 브랜드를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면 새로운 가치가 나옵니다. 그 가치를 모아 브랜드에 더하고, 사회와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 제 일의 핵심입니다.

다리에는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계곡과 강을 넘어 가게 해주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골짜기를 만납니다. 이런 인생의 도전을 만났을 때 혼자서 넘기란 쉽지 않죠. 그 어려움을 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코칭(coaching), 티칭(teaching), 멘토링(mentoring), 퍼실리테이팅(facilitating).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업무 역량을 통해 인생의 크고 작은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에게, 함께 일하는 팀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에게서 그치지 않고, 같은 마음을 품는 새로운 리더를 양성하고 싶습니다.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한동에서의 배움이 어떤 힘이 되었나요?

일의 보람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매출이 오르고, 시장점유율이 오르고, 손수 기획한 캠페인이 히트하면 당연히 기쁘죠. 그러나 그 기쁨은 금세 사라집니다. 오히려 그 일을 함께 일군 동료와의 신뢰, 눈빛, 전우애가 오래 남습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로 인해 감사와 인정을 받는 순간 마음속 깊이 보석으로 반짝입니다.

그럼에도 힘들었던 때가 떠오릅니다. 첫 직장 유니레버에서 업무 역량을 인정받고 영국 본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들뜬 마음도 잠시, ‘준비되지 않은’ 저의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회사의 마케팅인데도 본사의 마케팅은 업무 역량과 방식 모두 달랐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나아지지 않는 저를 보며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동에서 공동체 정신을 배운 사람입니다. 나 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고 효과적임을 경영 선교 공동체 ‘LAMB’에서 배웠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동시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가며 저에게 주어진 프로젝트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섬기던 힐송 런던(Hillsong London) 교회의 한국인 유학생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매주 초대해 식사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낯선 영국에서의 어려움이 풀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사에서의 시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후 삼성전자로 옮기는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다리는 ‘연결’입니다. 연결할 때 새로운 가치가 나옵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경영 선교 공동체 LAMB에서 떠난 태국 선교를 기억합니다. 군대를 갓 제대하고, 고작 한 학기 훈련받고 떠난 선교였는데도 태국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을 주러 왔다가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받고 가는구나’ ‘이렇게 작은 지식과 경험으로도 섬길 수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30년, 한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개교 초기, 많은 선배가 LG그룹에 입사한 사연을 들었습니다. 경북 구미에 LG디스플레이 공장이 있는데, 서울 소재 대학생들이 좀처럼 오지 않아서 한동대 학생들에게 기회가 생겼다는 얘기였어요. 이 일화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걷는 전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첫 회사를 선택할 때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유니레버보다 2배 이상 높은 연봉의 정유 회사 마케팅 부서에 합격했는데, 기도 끝에 마케팅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넓은 문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을 고려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곳이 어디인지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고난이 따르더라도, 연봉이 적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심령은 더욱 가난해지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나를 더 깎아낼 것입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동이 되길 소원합니다.

한동 후배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30년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앞으로의 30년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한동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동 후배들은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자’ 이곳에 오신 분들입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분의 이끄심을 체험’하길 기도합니다. 한동이 있어서 포항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세계가 삽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작지만 큰 대학’ 한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협력과 연합, 한동의 가치, 최영환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99학번으로 언론정보문화학부(현 커뮤니케이션학부)에서 공부한 최영환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저개발 지역의 자립을 돕는 문화 예술 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비영리 기관 '엠트리(Mtree)'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환경을 고려하고, 유럽의 지방 도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패션 기업 '루이 마티스(Louis Matisse)'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사실 대학 시절에는 지금 하는 일을 꿈꾸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서로의 비전과 소명을 묻고 나누는 한동의 문화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나와 주변 사람들만 위한 게 아니라, 사회와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확장 시절 마음 깊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한동의 'Why not change the world?'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한동의 학풍에 깊이 스며든 정신입니다. 총장님, 교수님, 동기, 선후배를 통해 자연스럽게 제 안에 내재화된 가치가 지금의 일을 시작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의 영역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그중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제가 속한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 영역에도 기술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절대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기술 아래 자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기술을 통해 일의 본질과 효율성을 높여가는 주체입니다. 과거에는 케냐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일일이 설명해야 했다면, 지금은 AI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혜택을 받는 사람도 단순히 도움받는 존재가 아니라 기술의 연결을 통해 스스로 배우고, 코칭을 받으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주체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술은 과거보다 정교하게 사회적 임팩트를 측정해주고, 우리 일이 세상에 어떤 선한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깊



최영환은 99학번으로 커뮤니케이션학부에서 공부했고, 현재 문화 예술 프로젝트로 저개발 지역의 자립을 돕는 비영리 기관 '엠트리'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사회적 패션 기업 '루이 마티스'도 운영하고 있다.

이 이해시켜주는 동반자입니다. 기술을 통해 업의 ‘본질’에 더욱 집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목적을 위해 일하지만, 일 그 이상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이기적’이라고 답변을 드리면 의외일까요? 저는 보나 나쁜 세상을 만드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가져다주고, 누군가에게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을 볼 때 큰 기쁨을 느낍니다. 저에게 일이란 세상을 위하는 동시에 저를 위한 가장 이기적인 것입니다.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한동에서의 배움이 어떤 힘이 되었나요?

보이지 않는 비전을 함께 믿는 사람들, 불확실한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을 만날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반대로 팀을 잘 세우는 일이 저에게 늘 어려웠습니다. 결국 일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일을 위해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솔한 어려움의 순간마다 한동에서의 공동체 경험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골 캠퍼스의 특성상 늘 사람과 부딪치며 살아야 했던 경험이 관계를 배우는 가장 좋은 훈련이었던 거죠. 1학년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며 다양한 전공의 친구들을 만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각자의 전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배웠으니까요.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진 동아리, 학회, 공동체 활동을 통해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나아가는 법을 몸으로 익힐 수 있었지요. 한동에서의 경험을 통해 지금도 사람들과 협업하고, 팀을 세우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한동의 30년을 돌아보면 가장 먼저 김영길 초대 총장님이 떠오릅니다. 그분의 비전 아래 우리가 한동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으니까요. 평생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도 한동에서 만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한동을 세우고 이끌어준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교에 다닐 때 대학 홍보 영상의 연출을 맡은 적이 있었어요, 20대의 시선으로 한동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획했는데, 막상 교무회의에서 회의적 반응이 나왔어요. 그때 “학생을 믿자”는 총장님의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군대에서 ‘건군 60주년 기념 뮤지컬’을 제작한 것도 기억납니다. 서울에서 공연하는데 총장님과 김영애 사모님이 직접 와주셨어요. 당시 제가 모시던 중령님에게 “우리 한동의 아들을 성장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허리 숙여 인사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는 총장님을 보고 중령님이 당황해하신 장면도 잊히지 않고요.

김영길 총장님은 학생을 정말로 사랑하는 교육자셨습니다. 때로는 보수적인 가치관과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섬세한 부분을 놓친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셨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마음껏 사랑하세요, 마음껏 아파하세요, 마음껏 함께하세요.
그 치열한 시간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앞으로 30년, 한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한동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잘해온 한동만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서로의 꿈과 비전을 진심으로 물어보는 학풍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동에서는 “너의 비전은 뭐야?”라는 질문이 너무 자연스러웠는데요, 그 질문과 대화 속에서 모두가 성장하는 동력을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끊임없이 연결되는 공동체 문화입니다. 세상은 나 혼자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협력과 연합이 강력한 힘이 됩니다. 한동은 서로 부딪치고, 연결되고, 팀을 이루는 문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돈으로는 결코 살 수도 만들 수도 없는 한동의 가장 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동 후배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걸음마를 막 댄 것 같았던 모교가 어느새 서른 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동에서의 시간을 정말 치열하게 살기를 권면합니다. 옆 사람과 부딪치고, 갈등을 겪고, 사랑도 주고받고, 상처 또한 주고받는 과정이 힘들겠지만, 결국 삶의 자양분이 되어 세상에 도전하는 용기와 통찰을 만들어줄 겁니다.

저에게 한동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배움의 시간이 아니라 사람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던 시절이었습니다. 20대라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 동안 마음껏 사랑하세요, 마음껏 아파하세요, 마음껏 함께하세요. 그 치열한 시간이 훗날 여러분을 단단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자, 고은애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02학번 국제어문학부를 졸업한 고은애입니다. 현재 '여성소망센터'에서 상담팀장으로 섬기고 있어요. 2016년부터 여성과 아이들의 회복 및 성장을 돕는 상담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국제어문학부를 졸업하고 선교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으며 '사람을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길 위에서 한 동대학교 상담대학원에 진학하고, 졸업 무렵 여성소망센터를 알게 되어 지금의 사역으로 이어졌습니다.

여성소망센터는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회복'을 함께 돕는 기관(one baby, one woman at a time)인데요, 이곳에서 심리 상담을 통해 엄마와 아기가 함께 살아가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사실 학생 때는 심리 상담사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꿈꾸어온 것 같아요. 막연히 'Why not change the world?'를 꿈꾸다가 엄마가 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한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게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품어온 마음을 현실로 이끌어주신 거죠.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의 영역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그중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향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따라 '사람을 이해하는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 어느새 '사람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핵심은 '관계'입니다. 상담사는 관계를 회복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인데요, 자신과의 관계는 물론 타인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다리를 놓는 치료자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일수록 인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일, 즉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연결하는



고은애는 02학번으로 국제어문학부를 졸업했고, 현재 '여성소망센터'에서 상담팀장으로 여성 및 아이들의 회복과 성장을 돕는 상담 사역을 하고 있다.

일'을 소명으로 삼으려 합니다.

**우리는 여러 목적을 위해 일하지만, 일 그 이상의 존재
이기도 합니다.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일은 단순한 생업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통합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며 주어진 생애 주기—결혼, 육아, 학업, 사역—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소명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사로서 전문성을 쌓는 것도 결국 많은 이를 돕기 위한 순종의 길입니다. '공부, 일, 신앙'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엮여 있을 때 일은 곧 예배가 됩니다.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가장 어려웠던 순간
은 언제였나요? 그때 한동에서의 배움이 어떤 힘이 되
었나요?**

상담사는 사람의 '변화'를 돕는 직업입니다. 저는 주로 미혼모를 만나는데요, 그들이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생명을 선택할지 포기할지를 고민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그들이 상담을 통해 두려움을 견어내고 생명을 선택하며, 한 아이의 엄마로서 삶을 책임지는 모습을 볼 때 감동과 기쁨을 느낍니다. 인간적 눈으로 보면 도저히 엄마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그들의 태에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순서는 뒤바뀌었지만 자신을 부인하고 엄마가 되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울 만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물론 어려운 순간도 선택과 책임을 함께 짊어질 때입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과 선택의 무게가 너무 커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장애 여성, 불법 체류자, 성 착취 피해 여성이 아이를 품을 때마다 "이 생명을 낳는 게 맞을까?"라는 인간적 질문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다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좁은 길을 선택한 대가는 매우 큼니다. 어린 산모는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그 선택을 지지한 우리는 밤이고 낮이고 엄마들이 부르면 달려가야 하고요. 자정이 넘은 시간 "선생님, 아이가 아파요. 응급실에 같이 가줄 수 있나요?"라고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 아이를 볼 때마다 어린 시절 저의 상처가 떠올라서 견딜 수 없어요. 무섭고 불안해요"라는 고통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배워서 남 주자'는 한동의 정신이 제 안에 살아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순종과 믿음이 모여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공부, 일, 신앙’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엮여 있을 때
일은 곧 예배가 됩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신앙의 본이 되어주신 김영길 총장님입니다. 채플에서 “배워서 남 주자”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총장님 삶의 철학임을 느꼈습니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자신을 부인하셨던 그분의 삶을 믿음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총장님은 결혼식 주례도 맡아주셨는데요, 그날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한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붙드는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정직’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리고 자신 앞에 정직한 공동체. 겉으로 괜찮은 척, 믿음 있는 척, 실력 있는 척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는 한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영길 총장님께서 가르친 정직의 유산이 앞으로의 한동을 더욱 단단하게 세워가리라 믿습니다.

한동 후배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정과 공동체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가정은 우리가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공간이고, 공동체는 가정을 지탱하는 울타리입니다. 한동의 후배들이 세상 속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한동, 글로벌 네트워크의 시작과 중심, 김종규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02학번 전산전자공학부를 졸업한 김종규입니다.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IT 서비스를 만드는 '식스티헤르츠'를 창업해서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식스티헤르츠는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누구나 쉽게 재생에너지를 쓰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일을 시작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학교에 다닐 때부터 '적정기술'처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활용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아쇼카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일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관심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해요. 기후 위기는 우리 세대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해요.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의 영역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그중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사실 에너지 분야는 IT 기술이 가장 뒤처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나 구매하는 방식은 부모 세대와 별로 차이 나지 않아요. 넷플릭스가 미디어 시장을 바꾼 것과 비교하면 거의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에너지야말로 기술이 지금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대표적인 분야인 셈이죠.

물론 모든 변화에는 명암이 따릅니다. 에너지 전환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계층을 일정 부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 목적을 위해 일하지만, 일 그 이상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의미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결국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일은 거



김종규는 02학번으로 전산전자공학부를 졸업했고, 현재 에너지 전환 IT 기업 '식스티헤르츠'의 창업자이자 대표로 일하고 있다.

대한 영향력(impact)을 미치지만, 어떤 일은 작은 영향력에 그치죠. 모두가 거대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일에 집중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방향으로 노력하면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이 이루어지고, 그만큼 나아집니다. 저에게 일의 의미는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한동에서의 배움이 어떤 힘이 되었나요?

일하다 보면 다른 의견을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우여곡절 끝에 실현되고, 나아가 기업의 변화와 국가적 제도 개선에 이르면 일의 효능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개인적으로 시민발전협동조합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아 대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이끈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위기나 어려움은 늘 찾아옵니다. 따라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창 시절, 학부 대표와 학부협력회 부회장으로 일한 경험이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이 지금 함께 일하는 것도 큰 힘이 되고요.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으로 한동대학교를 선택한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누구 한 명을 꼽지 않더라도 사회의 다양한 조건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한 그들 덕분에 지금의 한동대학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희생과 선택이 있어서 30년을 버틸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30년, 한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다른 나라, 특히 아시아의 다양한 우수 학생들을 지금보다 많이 모집하면 좋겠습니다. 그중 일부는 한국에서, 일부는 자신의 모국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인재로 키워내야 합니다. 글로벌 졸업생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하게 조직화하면 어떨까요. 한동인이 다양한 국가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발전시키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한동대학교도 이에 발맞춰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한동 후배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조연은 조연일 뿐이에요. 안전하고 평범하게 사는 것도 괜찮고, 모험적이고 비범하게 사는 것도 좋아요. 그래도 이걸 어떨까요? 인생은 한 번이지만 생각보다 길어요. 이왕이면 여러 가지 삶을 살아보는 것 말이에요. 일단 비범하게 살아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여러 삶을 살아보세요.

비범하게 살다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해도 충분합니다.

사람-지역-상품을 연결하는 새로운 로컬의 가치, 박주로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동대학교 04학번으로 법학부를 졸업했으며, 현재 ‘(주)로컬모티브’ 대표로 있는 박주로입니다. (주)로컬모티브는 식품과 공공 개발 분야를 아우르는 역동적 기업인데요, 고급 사르퀴트리 생산·유통, 외식 공간 운영, 지방정부와 협업해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어요. 사람-지역-상품을 연결해 지역 경제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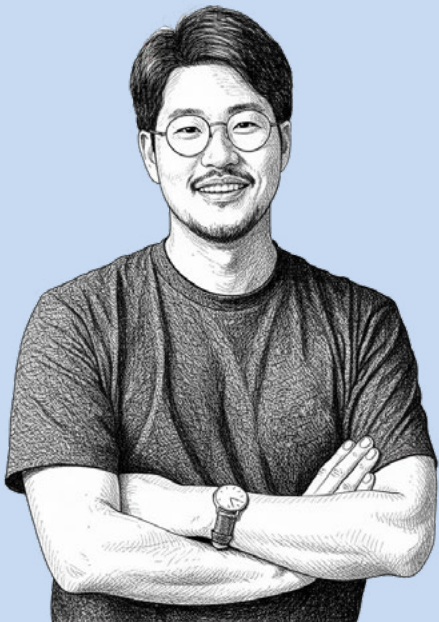
학창 시절부터 공간과 콘텐츠에 관심이 많았어요. 총학생회장으로 일하며 학교 식당과 각종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몰입했던 것도 사람이 모이고, 먹고, 나누는 기본으로부터 공동체가 지속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첫 직장은 국회였어요. 국공유 부동산과 대한민국에서 버려지는 자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경험이 (주)로컬모티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5년간 관련 회사로 이직해 전문성을 쌓은 뒤 8년 전 창업의 길에 뛰어들었습니다.

(주)로컬모티브는 국공유 재산과 지역 유휴 자원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경험에 기반한 전문 운영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중소 도시의 유휴 자원을 검토 및 컨설팅하면서 “무엇을 해결해야 하나” 질문을 던지며 고민했지요. 그 결과 영세하지만 40년간 진심을 가지고 유기농 식자재를 유통해오신 부모님에게 보고 배운 걸 토대 삼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식품 생산·유통 기업으로 방향을 전환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의 영역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그중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기술의 변화가 대한민국 로컬의 일자리를 줄이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분이 많으세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많은 사람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근본 문제를 기회로 전환하려면 ‘기술에 기반해 식민화를 산업으로 전환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로컬 비즈니스를 소상공업이 아니라, 식문화 기반의 산업으로 바라보고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단기 창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박주로는 04학번으로 법학부를 졸업했고, 현재 식품과 공공 개발 분야를 아우르는 ‘(주)로컬모티브’를 운영하며 사람-지역-상품을 연결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식자재 가공 → 브랜드 개발 → 수출 및 관광 연계’까지 이어지는 전체 생태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사례처럼 농산어촌 지역에서 충분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작고 강한 기업들이 국토의 자원을 균형 있게 사용하리라 기대합니다.

우리는 여러 목적을 위해 일하지만, 일 그 이상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일의 동기는 아직 모르겠어요.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까요. 돌이켜보면 저에게 일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자 자아실현이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시대와 인류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회사가 조금씩 성장할 때마다 회사를 선택한 임직원들의 인생과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한동에서의 배움이 어떤 힘이 되었나요?

어느 지역의 상권을 복원하고, 로컬 생산자의 제품이 전국 소비자에게 닿는 과정에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주)로컬모티브를 통해 생산자-유통사-최종 판매자로 이어지는 구조가 튼튼해질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해결하려면 팀과 기업이 필요하죠. 그 목적에 맞게 조각조각난 자원과 기회를 모아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낼 때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한동에서의 소중한 만남은 제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1호관 기숙사에서 만난 선배들과의 뜨거운 대화, 외국에서 온 친구들과의 문화적 교류를 통해 교회라는 울타리에 머물렀던 제 시야가 한층 넓어졌으니까요. 다양한 선배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성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법학부 교수님들과 수업 안팎에서 나눈 깊은 대화도 잊을 수 없습니다. 끈들·H밀란 등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젊음을 만끽한 시간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소중한 밑거름이었습니다.

학부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한동의 구성원들이 보여준 따뜻한 도움과 진심 어린 배려 덕분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교직원분들이 모아준 장학금을 비롯해 곳곳에서 저를 위해 베풀어준 마음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삶을 통해 갚아나가겠습니다.

앞으로 30년, 한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미래는 지역, 산업, 기술, 환경이 긴밀히 얽히는 시대가 될 거예요. 학문적 탁월성(academic excellence)의 중요성은 말할 수 없을 테고요. 학부 중심의 깊이 있고 차별화한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고, 미국 및 유럽의 소규모 대학(college)과 견주어도 결코 손색없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한동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다름에 대한 인정과 토론을 마음껏 장려하는 한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소 위험하더라도 비판적 사고를 통해 시대를 이해하고, 타인에 대한 감수성을 품는 게 중요합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차별적 시선이나 편협한 시각을 갖는 게 아니라, 넓은 시야를 통해 다양한 구성원을 존중하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공동체 교육이 펼쳐지는 한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동 후배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한동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가치 있게 변화시키는 한동의 동문을 기억합니다.

지금, 한동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꾸려나갈 후배분들도 그렇게 성장하리라 믿어요.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한동의 이름으로 서로 든든한 힘이 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시대를 이해하고, 다양한 구성원을 존중하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공동체 교육을 소망합니다.

사람과 세상의 무너짐을 회복하기, 이준철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004년 한동대학교에 입학해 국제지역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이준철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수륵아시아' 대표변호사, 법률·금융 기술 스타트업 '그라운드베이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변호사로, 법정 밖에서는 기술로 삶의 회복을 설계하는 창업가로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처음부터 변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를 돕는 삶을 동경했으나 막연한 꿈이었지요. 그런데 한동에서의 시간이 그 막연한 꿈에 방향을 만들어주었습니다. 학생 정치를 경험하며 법과 제도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때부터 법률가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변호사로서 사람들의 인생이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 한계가 보이더군요.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뜻이 맞는 동료들과 함께 법률과 기술을 결합한 스타트업을 창업해 좀 더 나은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의 영역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그중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질문 그대로 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단연 AI겠죠. 저 역시 업무 전반에 걸쳐 챗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과 스타트업의 주요 자료를 학습시켜 비서처럼 일하고 있지요. 이름도 '제임스'라고 붙였고요. 변호사로서는 통역과 문서 요약 및 분석에 큰 도움을 받고, 스타트업 대표로서는 사업 구조를 정리하고 전략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효용을 느낍니다. 기술이 제 일을 더 넓고 깊게 만들어준 셈이지요.

그럼에도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행사에서 들은 나이 지긋한 분의 연설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과 연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



이준철은 04학번으로 국제어문학부/경영경제학부에서 국제지역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고, 현재 '법무법인 수륵아시아' 대표변호사와 법률·금융 기술 스타트업 '그라운드베이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다

는데요, 깊이와 진정성 및 표현의 결이 모두 완벽했어요. 연설을 마치고 손수 땀뻑하게 적은 원고를 꼭 쥐고 연단을 내려오는 모습을 보며 ‘기술이 세상을 바꾸어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여전히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목적을 위해 일하지만, 일 그 이상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변호사를 시작하며 가슴에 새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로마로 향하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좌초 위기에 놓입니다. 모든 짐을 내던지고 마지막에는 식료품까지 버렸지만 바람과 파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니다. 구조의 희망이 사라진 순간, 바울은 배 한가운데서 이렇게 외칩니다. “포기하지 말라. 모두 무사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로마 황제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바울의 믿음에 찬 음성은 두려움에 잠긴 자들에게 평안을 전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며 인생의 풍랑을 만난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절망의 벼랑 끝에 선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위로를 전하고, 법정 밖에서는 구조적 문제로 반복되는 대립의 악순환을 기술로 풀고 싶습니다. 스타트업 그라운드베이직을 통해 대립을 조정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무너진 사람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돕는 것, 제 일의 이유이자 소명입니다.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한동에서의 배움이 어떤 힘이 되었나요?

일이 해결되는 순간은 언제나 큰 기쁨을 느낍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1년에도 수십, 수백 건의 사건을 다루며 크고 작은 보람된 순간을 수없이 마주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벅찬 때는 문제가 해결된 뒤 의뢰인이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해올 때입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다”라는 한마디가 그 어떤 성취보다 깊은 충만감을 줍니다. 누군가의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일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물론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리지만은 않습니다. 일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거나 노력에 비

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순간을 마주할 때면 책임감과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오지요.

그때마다 한동에서 배운 ‘믿음의 힘’을 생각합니다. 황무지 같던 땅 위에 세워진 대학, 그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막막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믿음이 지치지 않고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한동을 떠난 지 십수 년이 지났어도 김영길 초대 총장과 교수님들에게 받은 내리사랑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초대 총장님께서 늘 귀가 따갑도록 외치신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말씀이 어린 제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인재로 자라나길 바란 믿음의 고백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믿음과 신뢰의 크기만큼 우리가 자라났습니다. 총장님과 교수님들의 헌신으로 지금의 우리가 존재합니다. 한동에 참된 스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아도, 막막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시대와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대학은 계속됩니다.

앞으로 30년, 한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3년 전, 한동 재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오래 전 졸업한 선배의 이야기가 의미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드라마 〈시그널〉이 떠올랐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한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꿈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통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후배들과 묘한 동질감과 연대감으로 하나 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30년, 한동은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꿈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직과 성실로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동 후배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시간을 지나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지금의 한동은 오랜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시대로 들어선 듯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상황 너머 하나님의 대학을 완성하기까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는 그 부족함 속에 진정한 성장이 있다고 믿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학을 꿈꾸고, 한동에서 배우고 성장해 세상을 변화시킬 후배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행복한 세상, 임정택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경영경제학부 04학번 임정택입니다. 현재 ‘히즈빈스 (Hisbeans)’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로 있습니다. 히즈빈스는 ‘모든 장애인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비전 삼아 전국의 169명 장애인 직원과 94명 비장애인 직원이 함께 일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F&B, 제조·유통, IT,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한 장애인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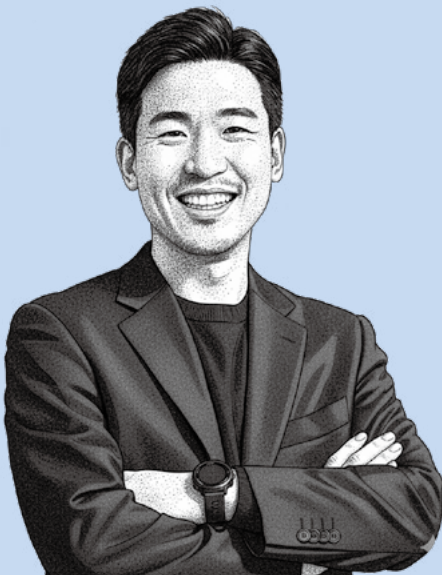
대학교 2학년 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라는 말씀을 통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 고민하며 포항 곳곳을 다녔는데, 이 땅의 약 15%가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한계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현실을 마주하며, 그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의 영역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그중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장애인 고용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커피 바리스타뿐 아니라 AI 데이터 분석, 디지털 제조, IT 기반 원격 근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은 일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믿음인데요, 기술은 그 소명을 돕는 도구일 뿐 사람의 존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목적을 위해 일하지만, 일 그 이상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일은 단순히 생계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장애를 가진 직원이 자신의 강점과 달란트를 발견하고, 전문가로 성장해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



임정택은 04학번으로 경영경제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세상을 꿈꾸는 사회적 기업 ‘(주)향기내는사람들’을 창업해 운영하고 있다.

나눔께서 주신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일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회복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고 믿습니다.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한동에서의 배움이 어떤 힘이 되었나요?

조현병 등 정신 질환으로 10년 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했던 직원이 있었어요. 그분이 히즈빈스에서 3년 이상 일하는 동안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동료들을 만나고, 커피전문가로 성장해 후배들의 롤 모델이 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장애가 있어도 누구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는 믿음이 현실이 되는 기쁨을 느낍니다.

물론 17년간 경영해오면서 어려운 순간도 많았어요. 그때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예레미야 29:11)는 말씀을 붙잡고, 한동에서 배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세 분의 멘토를 허락하셨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주신 장성한 목사님, 장애인을 향한 마음과 시선을 가르쳐주신 정숙희 교수님, 그리고 경영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법을 알려주신 오승환 대표님입니다. 이분들을 통해 ‘신앙, 사랑, 경영’의 세 기둥 위에 지금의 사역을 세울 수 있었어요.

지난 17년간 때에 맞게 함께 일해온 동역자(직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같은 미션과 비전을 꿈꾸고 도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들이 함께했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주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동역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30년, 한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한동은 세상의 성공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따르는 대학입니다. 앞으로 30년, 기술과 사회가 더욱 빠르게 변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를 세워가는 한동이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자리에서도 소망의 씨앗을 심는 학교,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학교로 계속 서 있길 기도합니다.

한동 후배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로마서 5:3~4)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인내하고, 연단받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은 정말 외롭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언젠가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때에 인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겁니다.

한동의 후배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축복합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하나님의 때를 믿고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한동인을 축복합니다.

기술은 생명을 섬기는 도구, 김형수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동대 06학번(심지어 학번도 20600206)으로 언론정보문화학부(현 커뮤니케이션학부)를 졸업한 김형수입니다. 재학 중 '트리플래닛'을 창업해 15년간 사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개 국가, 300개 이상의 숲에 13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배출권 확보, 재난 복구, K-pop 스타와 함께 만드는 '스타 숲' 등 다양한 사업을 국제기구와 정부 및 NGO 그리고 글로벌 기업과 함께 추진해왔습니다. 단순히 나무 심기에 그치지 않고 기술-사람-자연을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기후 해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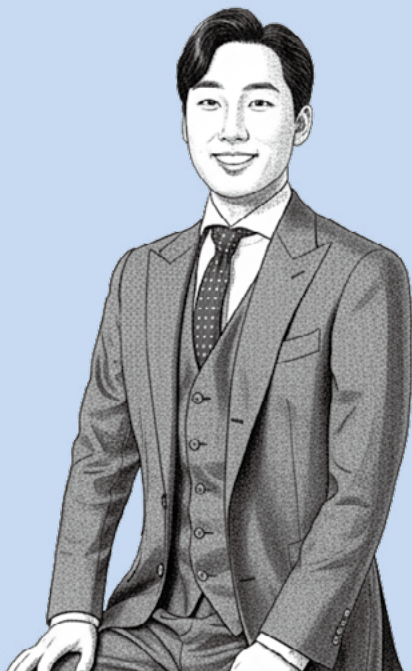
이 일을 시작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환경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하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환경 다큐멘터리를 만들다가 육군본부 방송국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죠. 그리고 제대 직후 투자를 유치하며 자연스럽게 창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는 '이야기하는 일'을 확장시켜 '환경.기술.비즈니스'를 결합한 지속 가능한 스토리텔링으로 발전한 셈이죠.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의 영역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그중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기후와 기술 모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구의 특산물이던 사과가 경북 영주와 강원도에서 재배될 정도로 기후가 달라졌어요.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산림 수종도 산불과 병해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트리플래닛은 독일의 산림 기술 기업과 협력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수종을 도입하고, AI와 드론을 활용한 산림 관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변화의 한가운데서 '기술은 생명을 섬기는 도구여야 한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기술은 인간의 편의를 넘어 지속 가능한 생명 관리의 수단이 되어야 하니까요.



김형수는 06학번으로 커뮤니케이션학부를 졸업했고, 학부 재학 중 창업한 사회적 기업 '트리플래닛'을 15년 동안 운영해오고 있다.

**우리는 여러 목적을 위해 일하지만, 일 그 이상의 존재
이기도 합니다.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제게 일은 ‘소명(calling)’입니다. 단순히 직업이나 생계 수단이 아니라 사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시시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세 가지 원칙을 복기하곤 했습니다. 제 삶의 방향을 지탱해준 원칙이죠.

- (1) 소명(calling) –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확신
- (2) 사명(mission) –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을 위한 일이라는 믿음
- (3) 문제의식(problem awareness) – 세상이 변해야 한다는 깨달음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한동에서의 배움이 어떤 힘이 되었나요?

아무래도 황폐했던 땅이 푸른 숲으로 변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숲이 사람, 동물, 미래 세대에 새로운 생명을 안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선택한 길에 확신을 갖습니다. 물론 위기도 많았습니다. 재정 문제, 협력 기관과의 조율, 조직 관리 등 수많은 어려움이 따를 때마다 한동의 가르침이 붙잡아주었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꾸자는 이 한 문장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 마음으로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심으며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무엇보다 대학 시절의 교수님, 친구, 학교 공동체가 떠오릅니다. 삶과 세상에 대한 올바른 태도, 원칙과 중심을 지키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한동에서 만난 친구들은 지금도 자주 만나며 서로의 길을 응원합니다. 저를 지탱해준 소중한 자산이죠.

앞으로 30년, 한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편입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경쟁하기보다 한동만의 가치와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동이 되길 바랍니다. 기적으로 세운 학교인 만큼 믿음과 순종으로 세상을 바꾸는 ‘한동의 길’을 깨끗하게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한동 후배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 제가 입학했을 때 개교 15주년이었는데, 그로부터 또 15년이 흘러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선배들처럼 학교의 명예를 빛내지 못해서 아쉽지만, 여전히 한동을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어디에 있든지 한동에서 배운 믿음과 정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동대학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믿음과 용기와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는 한동인이 계속 나오길 소망합니다.



**기술-사람-자연을 연결합니다.
믿음, 용기, 사랑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사랑과 위로의 공동체, 김재영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07학번 김재영입니다.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를 졸업하고, 모교에서 석사를 마친 후 미국에서 상담을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상담 및 상담자 교육 프로그램의 조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부 전공은 재활 상담인데요, 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재활을 지원하는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장애와 상담을 주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트라우마의 심리적·사회적 영향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솔직히 4학년이 될 때에도 졸업 후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졸업이 눈앞에 다가올 무렵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했죠. 그리고 여러 우연과 은혜가 겹치면서 지금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시기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시선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신앙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때마침 교수님의 도움으로 포항의 정신재활시설 브솔시냇가에서 사회복지 실습을 하며 장애를 가진 분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가장 낮은 곳을 향한다면, 그곳에 장애인분들이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조금은 늦게 이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지요.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의 영역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그중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상담자 교육 현장에서도 AI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상의 내담자를 만들어 교육과 훈련에 활용하고, 간단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있어요. 과거 인간이 수행하던 여러 기능이 빠른 속도로 기술로 대체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상담자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사람으로서 기술이 상담자의 ‘존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학생, 내담자, 청중)에게 기능의 전달자



김재영은 07학번으로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를 졸업했고, 모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상담 및 상담자 교육 프로그램의 조교수로 일하고 있다.

만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를 전하는 관계적 존재로 다가가고자 노력합니다.

상담자로서의 기능, 즉 정서적 지지·조언·안내·공감·교육을 기술이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내담자와 깊이 관계 맺고 타인이 삶에서 기댈 곳이 되어주는 관계적 토대로서의 상담자라는 존재는 기술이 쉽게 대체할 수 없을 거예요. 온기 없는 기능적 접촉만으로는 인간의 생존과 성장을 온전히 촉진할 수 없다는 심리학 연구처럼 말이죠.

제 일을 통해 일상의 언어와 소통의 온도로 따뜻한 관심과 존중을 전하는 '존재'로서의 상담자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구요.

우리는 여러 목적을 위해 일하지만, 일 그 이상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 평소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 및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믿어요.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그땐 곁에서 손 내밀고 어깨를 내어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우리의 손과 어깨를 기꺼이 내어줄 때 세상이 조금이나마 나아진다고 믿어요. 이 믿음은 개인적 경험이자 신앙적 정체성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일이란 손과 어깨를 기꺼이 내어줄 사람들을 기를 책임이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이자,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해요.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한동에서의 배움이 어떤 힘이 되었나요?

제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보람을 느껴요. 상담을 마치고 위로받았으며 돌아서는 내담자들, 수업을 통해 배움과 의미를 찾았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을 볼 때 감사와 기쁨을 느낍니다.

어려움과 위기는 매일 수시로 찾아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스스로 "부족하다" 느껴질 때 자책하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이전부터 오랫동안 절 믿어주고 지지해준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 중에는 감사하게도 한동에서 만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지금보다 부족하고 서툴렀던 저를 향해 늘 "괜찮다" "잘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한동인이 큰 힘이 됩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3학년 때 교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어디에 가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먼저 보이고, 잘못된 점이 눈에 띄어서 불평불만을 하게 되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런 제 모습이 싫어서 고민을 나누었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무언가 잘못되어 있음을 알아차린다는 건 참 귀한 능력이야.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지."

그 순간, 저의 결점이 비판적 태도라는 '능력'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이 능력을 어떻게 긍정적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책하던 일이 많았던 저에게 한동에서 만난 사람들은 내 안의 강점과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었어요. 다시 생각해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상의 언어와 소통의 온도, 따뜻한 관심과 존중.
서로의 가치와 강점을 바라보며 어려운 자에게 손과 어깨를 건네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30년, 한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위로와 격려를 건넬 따뜻한 존재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하면 안 돼”라는 말들은 상처를 덧나게 만들 뿐이죠. 아픈 사람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무엇을 하라고 독려하기보다 그저 이해하고 곁에 있어주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동은 공동체 안에서 옳은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30년은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점점 늘어날 거예요. 한동이 종교적 옳고 그름에 얽매이기보다 고통받는 공동체 구성원과 이웃을 먼저 되돌아보는 사랑과 위로의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응원합니다. 어느 기독교 작가의 말처럼,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은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경험’일 테니까요.

한동 후배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한동의 지난 30년이 아름답고 완벽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어느 공동체나 그렇듯 고통, 갈등, 부끄러움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적어도 제게 한동은 여전히 따뜻한 기억을 간직한 위로의 공간이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뜻깊은 공동체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런 모습으로 존재해준 한동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음 30년,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한동을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한동에서 만난 사람들이 저에게 그러했듯이 서로의 가치와 강점을 바라보고 발견하며, 지치고 힘든 누군가에게 기꺼이 손과 어깨를 건네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하조은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09학번 하조은입니다.

이 일을 시작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대학에 진학할 때는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론정보문화학부(현 커뮤니케이션학부)와 경영경제학부에서 복수 전공했죠. 그런데 졸업은 GE(ICT창업학부)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당근을 서비스하는 '당근마켓'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요. 사소한 계기와 욕심이 제 길을 바꾼 것 같아요. 전 산전자공학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계기는 같은 방을 쓰던 선배의 영향이 컸어요. 복학하고 교양 과목을 고민하는데, 선배가 'C-프로그래밍'을 같이 듣자는 거예요. 웬지 코딩이 멋져 보여 좋다고 했죠. 밤새 과제를 하며 수업을 듣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프로그래밍이 잘 맞는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 후 창업 경진 대회에 나갔습니다. 수상한 팀을 보며 IT 창업을 하려면 개발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웹 개발을 공부했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죠. 곧장 작은 스타트업 인턴을 지원했고, 본격적으로 개발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의 영역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그중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AI가 바꾼 변화가 크겠죠.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정보를 활용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일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AI가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하면 AI가 잘하는 걸 AI에게 맡기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목적을 위해 일하지만, 일 그 이상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AI를 활용하는 고민도 중요하지만, 결국 일의 의미는 여전히 사람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 잘하는 사람은 저마다의 의미를 품고 일한다고 생각해요. '왜 이 일을 하는가? 왜 이



하조은은 09학번으로 산전자공학/ICT창업학부를 졸업했고, 현재 '당근마켓'에서 서비스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

회사를 선택했나?’ 같은 고민은 아무리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정답 없는 개인의 믿음이라고 할까요. 일의 의미에 대한 고민을 위임하지 않는다는 게 제 원칙입니다.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한동에서의 배움이 어떤 힘이 되었나요?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겠죠. 요즘은 재미있어서 일합니다. 특히 함께 일하는 게 즐거워요. 일하는 순간에 서로의 존재를 생생하게 느껴요. 살아 있음을 느낀다고 할까요, 존재감을 느낀다고 해야 할까요. 일하는 동안에는 동료들과 제가 서로의 존재 이유가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일의 의미 또한 중요합니다. 지금 당근마켓에서 제가 하는 일은 이웃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개발자로서 이웃에게 사랑받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어요. 이 일이 저에겐 딱 맞아요. 이웃 간의 신뢰를 회복해서 경제적·사회적 이득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보람칩니다.

협업을 통해 아주 힘든 프로젝트를 해냈을 때에도 보람을 느낍니다. 뱅크샐러드 시절에 진행한 ‘마이데이터 프로젝트’가 기억에 남는데요, 스크래핑과 금융사 API를 개별로 조회하던 방식을 마이데이터 API로 옮기는 일이었죠. 프로젝트 규모도 크고, 무엇보다 시간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직무와 팀을 가리지 않고 모두 힘을 합쳐 뚝뚝 뚫아서 제시간에 마무리 지었죠.

협업은 매번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이해관계가 다르니까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일정한 기간 안에 일이 완성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때로 예민해지고 불평이 터지기도 하죠. 그럼에도 그 과정의 의미를 알고 끝까지 해내는 건 한동의 팀 문화의 영향을 받은 듯합니다. 전공이나 학년과 무관하게 한 팀으로 인연을 맺어 팀 모임, 특송, 생일, 중파 등 각종 이벤트를 함께 하잖아요. 4년 동안 팀 활동을 하면서 협업에 필요한 소프트 스킬을 익혔다고 생각해요.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김영길 초대 총장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입학식에서 총장님과 사진을 찍은 순간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총장님이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려 응원해

주시곤 하셨죠. 처음에는 연예인 같았는데, 이제는 은인이네요.

돌이켜보면 저의 커리어는 총장님이 세운 한동의 문화와 교육철학 덕분이었습니다. 지금은 흔하지만 제가 개발자로서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문과 출신 개발자는 드물었죠. 자유로운 전공 선택을 통해 문과 출신인 제가 컴퓨터공학을 전공할 수 있었고, 결국 개발자로 일하게 되었어요. 일에 대한 만족감이 클수록 총장님에 대한 고마움도 커집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배워서 남 주자”라는 말씀을 여전히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무관심한 오늘날, 한동은 ‘남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가치를 심어줍니다. 한동이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시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능력 있는 학생을 많이 배출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30년, 한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인생 선배들은 늘 후배들을 바라보며 걱정하죠.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때도 선배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 있었지만, 모두 잘하고 있으니까요. 후배들도 마찬가지로 거예요. 오히려 저희보다 더 잘할 거라 믿습니다.

한동 후배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는 동문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한동대에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주고받곤 하죠. 농담이 현실로 실현되기 위해 앞으로 30년, 100년 이상 한동대가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어느 학교와 비교해도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대학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마도 많은 후배가 ‘정답이 없는’ 선택을 앞두고 있을 거예요. 전공 선택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처음 겪는 선택을 해야겠죠. 저도 졸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은 늘 처음 겪는 일투성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 믿음과 용기를 주시죠.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말고, 선택하고 믿음을 구하세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하나님은 정답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믿음과 용기를 주시죠.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선택하고 믿음을 구하세요.

사랑과 화해, 생명을 살리는 통로, 원보람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0학번 졸업생 원보람입니다. 한동대에서는 한국법과 국제지역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군법무관으로 5년간 근무했어요. 지금은 '창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10대 시절부터 막연히 법조인이 되고 싶었어요. 한동대 법학부에서 공부하면서 구체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법조인의 꿈을 가졌습니다. 로스쿨에서는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벅쳤으나, 한동에서 공부하며 품은 비전을 되새기며 버텨낼 수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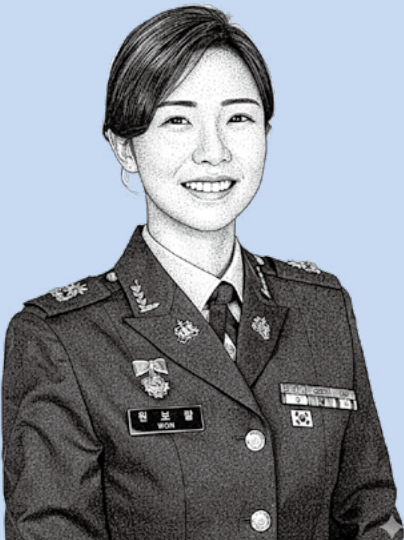
졸업하고 법무관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다행히 제도에 변화가 생기며 전역과 동시에 법관 시험에 응시해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여기겠지만, 저는 여전히 생명을 살리는 법조인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의 영역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그중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양의 서류를 분석하고, 복잡한 법령이나 논문을 찾는 일이 쉬워지고 있어요. 법률 전문 분야의 AI가 발전해 유사한 판례를 찾는 시간을 단축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유사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저마다 다른 당사자의 삶이 담겨 있어서 AI에 사건의 분석을 온전히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건이 많아지더라도 판사가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고 기록을 파악해 그 속에 담긴 당사자의 삶을 직면해야 한다는 원칙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목적을 위해 일하지만, 일 그 이상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단순히 먹고살기 위한 행위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향한



원보람은 10학번으로 법학부/국제어문학부에서 한국법과 국제지역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로스쿨에서 변호사 합격 후 군법무관으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창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일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일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제 일은 타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따라서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결코 해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매 순간 절실히 느낍니다.

셋째, 사랑하는 가족 및 이웃과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한동에서의 배움이 어떤 힘이 되었나요?

첫 근무지에서 군인에게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민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열 번 이상 고소를 남발하던 사람이었죠. 그분의 사건이 저에게 배당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저 역시 고소를 당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로 그 사람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할 때마다 ‘그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저를 공격하는 사람을 위해 억지로 기도하고 나면 놀랍게도 다시 용기를 내어 대면할 수 있었지요. 결국 그분이 고소를 취하했어요.

업무를 하면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니까요. 저 역시 한동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잖아요. 이기적이고 부족한 저를 여전히 사랑하고 아끼는 그분의 큰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의 힘으로 조금이나마 변화되었기에 제가 만나는 사건과 당사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동에서 배운 사랑과 용납의 힘이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하나님이요!”라고 하면 식상할까요? 한동에서 만난 하나님은 저 자신조차도 사랑하기 어려운 못한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셨어요. 한동에서 만난 선후배, 동기, 교수님들이 사랑의 통로가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남는 순간이 있는데요, 팀원들에게 실수했다고 생각해 마냥 숨고 싶었을 때 방순이 언니가 찾아와 “괜찮아, 보람아. 너의 있는 그대로 모두 괜찮아”라며 다독여 주던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잘해서 칭찬받은 순간보다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 저를 품어준 따스한 기억이 용기를 북돋아주었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여러 번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분열하고 다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좋다고 알려주는 방향이 아니라, 내 마음이 떨리는 곳을 향해 기도하세요.

앞으로 30년, 한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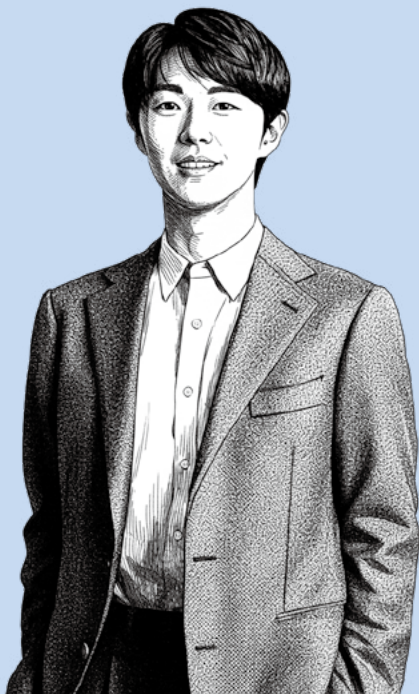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합니다. 끝없이 분열하고 다투는 세상에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한동에서 다양한 기회를 잘 활용하고, 전공 안팎의 여러 영역을 경험하며, 기도하고 싶은 영역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좋다고 알려주는 방향이 아니라, 내 마음이 떨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습니다.

저에겐 ‘노인’과 ‘통일’이 그 영역이에요. 사회의 어르신들이 외로움 속에 버려지지 않고, 세대와 세대 간에 연대의 시선으로 노년 세대를 위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라 믿어요. 통일 역시 단순히 제도의 통합이 아니라, 사랑과 화해의 회복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많은 한동인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한동 후배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한동의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많은 이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대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 여전히 많아요. 《성경》에서 배운 가치를 실천하고, 기도하며 애쓰는 한동 동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동의 가르침은 매우 특별해요. 《성경》 말씀처럼 가장 귀한 청년의 때에 다윗의 물뱃돌과 같은 무기를 갈고닦아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변하는 세상, 변하지 않는 한동, 김선업



김선업은 11학번으로 ICT창업학부/경영경제학부에서 ICT융합과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고, 현재는 CJ그룹 IT 계열사인 '올리브네트웍스'에서 교육 사업 PM과 AI 전략을 담당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들의 '인생 기획자'로 살아가는 김선업입니다. 11학번이고 ICT융합과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HR·교육·금융·IT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운영, 데이터 분석, 서비스 기획, 사업 전략 직무 등을 수행했습니다. 지금은 CJ그룹 IT 계열사 '올리브네트웍스'에서 그룹 대내외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 PM 및 AI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처음 입사하며 AI연구소에서 데이터 프로덕트 매니저(data product manager) 역할을 맡았어요. 이후 신사업팀 PO, 신사업 기획, 공통 IT 프로덕트팀 전략 기획 등 다양한 팀을 거치며 '주님 안에서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아셨을까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며 저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 교육 사업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제 모습은 학부 시절에 꿈꾸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회사를 경영하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기업 경영 및 사업을 하고 싶었죠. 그런데 한동에서의 시간과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들에게서 독특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일에 기쁨을 얻고, 동기부여가 생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언제나 깨달음은 뒤늦게 찾아오는 법이죠. 학부 시절 동아리 2개, 학회 2개, 총학생회, 학부 대표, TA, 새내기 섬김이 등 여러 활동을 통해 귀납적으로 발견한 깨달음이었어요. 매 순간 저에게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아무리 작더라도 늘 시도하고 도전한 선택을 멈추지 않았던 게 지금의 길로 인도했다고 믿습니다.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의 영역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그 중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IT, 금융, 교육, AI, 데이터 등 기술이 삶을 바꾸는 모습을 가까운 거리에서 경험하며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은 반복적으로 하던

일을 AI 기반 에이전트로 대체하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작게는 나의 업무와 부서 업무, 크게는 회사가 어떻게 변화하고 적용해야 하는지를 실험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이후 우리 삶이 크게 변했듯이 AGI가 바꾸어갈 세상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AI 시대에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한 **故** 이여령 선생의 말씀처럼 인간은 경주하는 말(馬)이 아니라, 말을 다스리고 활용하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AI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놓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우리는 여러 목적을 위해 일하지만, 일 그 이상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필요로우면 행복할까? 어릴 때부터 제가 파고든 질문이에요. 최종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때마침 그 시기에 맞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품은 비전을 살짝 고백한다면, “나, 김선엽의 비전은 자극적이고 거짓된 것을 옳다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마다 가진 원석 혹은 보석을 현실적 방법으로 발견하고 키워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산업과 직무를 거치며 전문성 부족이 아쉬울 때도 있었으나, 저에게 다양한 경험을 허락하신 하나님 뜻에 감사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래했지만, 여전히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한동에서의 배움이 어떤 힘이 되었나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듣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기뻐할 때 보람됩니다. 세상의 다양한 도구와 더불어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일에서 저의 가치를 찾아요. 젊은 친구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위기는 다양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그 이유를 핑계 대며 자신에게 너무 매몰되거나 문제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읊처럼 제 앞에 놓인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기, 선후배, 교수님, 기숙사 간사님 등 한동에서 만난 모든 분에게서 배운 핵심 가치이기도 하고요.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아쉬움, 한동에서 하나님을 만난 일, 많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한 일,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겠다고 다짐한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중에서도 김영길 초대 총장님의 간증처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는 4학년 어느 하루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때까지 지식과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그쳤던 교만한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주셨어요. 그날 이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죠. 지금도 살아가며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닥쳐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하지 않으면 뒤쳐진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30년, 한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졸업 이후 한동에서 경험하고 배운 가치가 삶으로 드러날 때마다 한동 공동체에서 배운 섬김, 소통, 배려가 떠오릅니다. 한동인이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한동만의 ‘공동체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IT, AI 등 시기마다 다양한 키워드가 나타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동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일의 중심에 한동인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개인·공동체·학교가 추구해야 하는 구체적 방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서 서로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한동 후배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정의로우시며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동이 출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한동은 선택하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협력하며 선으로 이루었습니다.

지금의 한동이 있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영길 초대 총장님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저를 비롯한 많은 한동인이 예수님 제자로서 순종의 삶을 살았듯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도전하는 청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지금 하지 않으면 뒤쳐질 듯한’ 가치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한동 후배들은 그러한 가치에 매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분은 세상과 모든 생명을 지으신 분임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삶에 허락하신 ‘소명’을 실천하세요. 큰 꿈과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전을 실제로 그리게 만드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내리는 선택과 행동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과 순종을 통해 그 꿈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오늘 더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 세상을 연결하는 마음, 김진형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1학번으로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에서 디자인, 커뮤니케이션학부에서 공연영상을 전공한 김진형입니다. 지금은 뉴욕에서 뮤지컬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직장에서는 UX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목표는 있지만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죠. 그때는 이미 목표를 이룬 사람처럼 행동해보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겨울왕국>이 한창 인기였어요. 그때 처음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접하고 ‘나도 만들어보고 싶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군대에서 뮤지컬을 만들어 장기자랑 시간에 발표했죠. 복학 후 언론정보문화학부(현 커뮤니케이션학부)에서 뮤지컬 작곡과 음악감독을 하며 경험을 쌓았고, 2015년과 2016년 학부 합창 대회에서 작곡과 음악감독을 맡으며 제 꿈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후 뮤지컬의 본고장 뉴욕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NYU에 지원해 지금에 이르렀어요.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의 영역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그 중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경험과 삶의 강도를 바꿀 수 있어도 인간이 느끼는 희로애락은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변화가 신선한 주제가 되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기보다 반기는 편입니다.

우리는 여러 목적을 위해 일하지만, 일 그 이상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일은 일단 재미있어야 해요. 일이 재미없으면 금방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나아가 뮤지컬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류애를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점점 갈등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그 안에서 예술은 여전히 서로를 ‘연결’하는 언어라고 믿어요.



김진형은 11학번으로 커뮤니케이션학부/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에서 디자인과 공연영상을 복수 전공했고, 현재는 뉴욕에서 뮤지컬 작가 및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시에 UX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한동에서의 배움이 어떤 힘이 되었나요?

제가 만든 이야기와 노래를 사람들이 기억할 때 보람을 느껴요. 가장 큰 어려움은 협업 과정에서 생기는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소중한 제 아이디어를 동료가 반대하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마다 한동에서 배운 ‘겸손’을 떠올립니다. 사실 겸손은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있어요. 상대의 의견을 진심으로 듣고 수용하는 태도는 평생의 과제인 듯합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한동을 안전한 울타리로 만들어주신 학교 구성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중에서도 “장인 정신은 태도에서 나온다”라고 가르쳐주신 이재선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타이포그래피’ 수업은 제 인생의 태도를 바꾼 시간이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가르쳐주신 이진구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수업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고마운 친구 조서영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 30년, 한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Why not change the world?” 정말 멋진 문구죠. 그러나 마음과 귀가 닫혀 있으면 자칫 세상을 ‘가르치려는’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경험주의자로서 저는 자신 안의 확신을 의심하고, 반증하고, 타인의 입장을 공감할 때 진짜 배움이 이뤄진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Be more vulnerable; let the world change you. Then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마음을 열어 세상이 너를 변화시키게 하라. 그리고 그다음엔 네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라).”

한동 후배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한동 30주년을 축하합니다. 학교 안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학교 밖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쌓으세요. 무엇보다 떠오르는 생각을 꼭 글로 남기세요. 글을 쓰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명확해집니다. 한동 후배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내 안의 확신을 의심하고, 반증하고, 타인의 입장을 공감할 때 진짜 배움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경작하고 섬기는 한동인, 박수환·김예영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1학번 박수환, 김예영 부부입니다. 수환은 GM과 제품디자인을 전공했고, 예영은 어문학과 공연영상을 전공했습니다. 지금은 부부가 함께 크리스천 연애 & 결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저희는 만 19세에 캠퍼스 커플로 연애를 시작했고, 만 24세에 결혼, 그리고 1년 뒤 임신·출산을 했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참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어린 나이로 사회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재정 상황도 어려워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붙잡았어요.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듯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니 재정도 해결해주시고, 부부도 하나 되는 걸 경험했어요. 이토록 좋은 경험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떠올렸지요. 어떤 영상으로 유튜브를 시작할까 고민하면서 몇 달을 미루었는데, 어느 날 첫째 아이를 돌보며 걸레로 바닥을 닦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며 “예영아, 이제 유튜브 시작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날, 집에 굴러다니던 삼각대에 아이폰 6S를 설치하고 첫 영상을 찍었어요. 처음 영상을 찍은 마음을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지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연애와 결혼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랍니다.

사실, 저희 둘 모두 학생 때는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한동대에 다니며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연애 상담을 해주었더라고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질 때 보람을 느꼈어요. 그렇다고 이 마음으로 직장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희의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해주셨어요. 하나님께 삶을 맡기자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거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각 때에 맞게 일용할 양식으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실제로 각 영역에서 최고의 사업(entrepreneurship)을 일군 사람들도 하나같이 돈을 위해 일하면 금방 지치지만, 자신의 열정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까(serve) 고민할 때 만족



박수환·김예영은 11학번으로 각각 경영경제학부,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와 국제어문학부, 커뮤니케이션학부를 졸업했고, 현재는 함께 크리스천 연애 및 결혼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한다고 하더군요. 어느 때보다 섬김 리더십이 중요한 시대에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하고 있어서 기쁩니다.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의 영역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그 중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11년 전, 제품디자인을 전공하고 졸업전을 하던 때와 비교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어요. 4명이 팀을 이루어 한 달을 작업해야 가능했던 일이 지금은 혼자서 일주일 만에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대로 '경작하고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겸비할 때 어떤 세대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열매를 맺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여러 목적을 위해 일하지만, 일 그 이상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에게 일은 곧 '섬김'입니다. 섬길 사람들(수요)이 있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섬김(공급)이 있어서 일을 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예수님의 파트너로서 '참여'한다고 믿어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라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의 도움을 받아 사람들이 행복해할 때 너무 기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이 목자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으면 정말 기쁩니다. 저희는 양으로서 목자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재정이 따라오는 것도 저희의 또 하나 간증입니다.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한동에서의 배움이 어떤 힘이 되었나요?

저희는 유튜브와 함께 '연결성(연애, 결혼, 성) 학교'라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이혼 위기에 놓인 커플이 7주 만에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어요. 수많은 사람이 저희의 영상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한동은 저희에게 '관계'를 가르쳐주었어요. 팀 제도, 동아리, 그리고 저희 부부는 특별히 MNT(Mission aNd Talent)라는 선교 단체를 통해 관계 안에서의 섬김을 배울 수 있었어요. 한동에서 배운 이런 가르침이 지금 꽃피우고 열매를 맺는 듯합니다.



예수님은 강하세요. 그분의 강함을 체험하세요.
세상을 섬기는 풍성한 삶을 사세요.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수환에게는 예영을, 예영에게는 수환을 연결해준 한동, 구체적으로는 선교 단체 MNT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 '사랑'이라는 큰 주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 좋아하면서도 나의 기준으로 섬기는 데 그쳤던 저(예영)는 MNT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나와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들과 함께 선교를 준비하고, 함께 성장했던 과정이 특별하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한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한동은 'Handong God's University'라는 간판을 건 놀라운 학교입니다. 그 말처럼 예수님을 품고 가르치는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모래처럼 사라질 우리 삶이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토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동 후배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후배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한동에 왔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통해 이곳에 왔다고 믿습니다. 한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한동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동에서 주어진 많은 것을 충분히 누리세요. 예수님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대학이지만, 정작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바쁘다는 핑계로 현실에 물들어 하나님을 잊은 채 힘겹게 살아가는 동문을 간혹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길 원하세요. 한동 후배분들도 그분이 안겨준 행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취준'보다 강하세요. 예수님은 돈, 인맥, 부동산보다 더 강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 직접 체험하세요. 세상에 치여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섬기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세요.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섬기세요, 이은혜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12학번 이은혜입니다. 광고 제작 프로덕션 '스튜디오 에덴'을 운영하며, 광고 및 콘텐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연출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에덴은 다양한 시각 매체를 통해 광고성 콘텐츠(TVC, 옥외광고, 유튜브 광고), 뮤직비디오, 화보 등 비주얼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 이노션, 삼성전자, 맘스터치, SM엔터테인먼트, 한샘가구 등 여러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2016년에 회사를 설립해 어느덧 9년째가 되었습니다. 사실 스튜디오 에덴은 저의 졸업 전시 작품이었어요. 많은 분이 디자인학부를 졸업하고 어떻게 영상 작업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셔요.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서울에서 열린 '아트 필름' 수업을 듣고 싶어서 무작정 영상 아카데미에 등록한 게 첫걸음이었어요. 비록 영상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울 수는 없었지만, 촬영과 편집에 관한 기본 메커니즘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영상'을 통해 무언가를 '표현'한다는 것도 매력적이었고요.

두 달 남짓한 수업과 상영회를 마치고 수업 때 알게 된 후배와 프로젝트 그룹을 시작했는데, 바로 스튜디오 에덴이었습니다. 매력적인 인물을 섭외해 다양한 콘셉트와 메시지를 담은 12편의 영상 화보와 사진을 꾸준히 올린 첫 프로젝트 'I-AM Project'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지속적으로 업로드했어요. 졸업 전시를 준비하면서 서울과 포항을 오가면서 촬영하느라 쉽지 않았지만 즐거움이 훨씬 컸어요.

그렇게 졸업 전시를 잘 마무리하고,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취업할지 유학을 갈지 고민했는데요, 무슨 자신감이었을까요? '이 프로젝트 그룹을 1년만 더 해보자'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의 여정을 함께해준 친구도 든든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체를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웨딩 촬영, 제품 홍보 영상,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차츰차츰 주변에서 연락을 주시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은 저를 포함해 누구도 상상하



이은혜는 12학번으로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를 졸업하고, 광고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광고 제작 프로덕션 '스튜디오 에덴'을 운영하고 있다.

지 못했어요. 영상을 접하고, 프로젝트 그룹을 진행하며 마주한 새로운 경험이 지금 이 길을 걷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의 영역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그 중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AI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생형 AI와 AI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면서 제가 몸담은 업계는 일의 효율이 높아졌어요. 이전에는 오랜 시간을 들여 광고 제안서에 들어갈 시안 이미지를 만들고 스토리보드를 그렸다면, 지금은 원하는 결과물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아주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실체화하는 작업이 편해진 거죠.

한편으로는 정보의 과잉, 선택의 과잉 시대가 마냥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생형형 AI가 아무리 많은 결핍점을 제공하더라도 결국 선택은 우리 몫이니까요. 선택하는 주체인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던지는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는 시간마저 AI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생각을 AI에게 맡기고 싶지 않아요.

챗GPT가 다양한 촬영 기법, 편집 기법, 카피를 능숙하게 뽑아내더라도 그 촬영 기법을 통해 시청자에게 어떤 감각을 느끼게 할 것인가, 브랜드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와 부합하는가, 핵심 카피를 통해 시청자가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등 본질적인 부분은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AI는 학습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무언가를 느끼는 것’은 아직 인간이 뛰어나다고 봅니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저의 기준과 판단만큼은 흔들리지 말자는 태도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목적을 위해 일하지만, 일 그 이상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사업 4~5년 차부터 회사가 크게 성장했어요. 협업하고 싶었던 브랜드와 많은 프로젝트를 하며 매출이 꾸준히 올랐

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저에게 가장 불행했던 시기였어요. 늘 쫓기듯 불안했고, 불면증과 공황장애도 찾아왔죠. 그렇게 2023년까지 2년 남짓 그 상태로 일해야 했어요.

그러다가 2024년 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린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이사야서 55:2)는 말씀을 읽으며 제 안의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을 깨달았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인정과 성과를 우선했던 나날, 제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외면했던 나날. 제가 우선시 하는 가치가 얼마나 허망하고 저 자신을 갉아먹는지 깨우치고 나니 일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요. 수익성, 회사의 성장, 개인의 비전 등 다양한 목표를 세울 수 있지만 결국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광고와 영상 만드는 일을 저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여겼던 과거에는 늘 예민하고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광고 촬영 현장이 저의 섬김이 흐르는 통로가 되었음을 실감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과 함께 일합니다. 과거의 저는 경쟁을 의식하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지금은 ‘함께’라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보완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저 또한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저 자신과 제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알 수 없을지라도 제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제게 주어진 것을 적극 활용해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이 《성경》 말씀처럼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에베소서 6:7)

지식과 기술은 어디서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 활동, 협업, 섬김의 자세는 한동에서만 배울 수 있어요.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한동에서의 배움이 어떤 힘이 되었나요?

언젠가 저 자신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너는 왜 광고를 만들고 있어?” 한동안 이 질문에 답하지 못했어요. 광고·콘텐츠는 명확히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클라이언트의 니즈에 맞게 콘텐츠를 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개인의 비전과 목표를 투영하기 어렵다고 간주해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알지 못하던 브랜드의 광고를 보고, 제품까지 구입하며 ‘소비자의 가치 있는 소비 활동을 돕는 길잡이’라는 광고의 역할을 새삼 깨달았어요. 그때를 계기로 “스튜디오 에덴은 가치 있는 소비문화를 이루어나가기 위해 존재합니다”라는 문장을 회사 소개서에 넣었습니다. 가치 있는 소비문화를 만든다는 기준을 두고 오늘도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큰 사건은 없었어요(그런 이야기를 기대하셨다면 죄송해요). 회사를 다니다가 창업한 게 아니어서 직접 부딪치고 실수하며 회사의 체계와 워크 플로(work flow)를 만들어가야 했다는 게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다행히 한동에서의 공동체 활동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4학년부터 팀으로 수업을 진행했어요. 서로 협업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피드백을 적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초기 프로젝트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사실 디자인이나 기술은 어디서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 활동, 협업, 서로 섬기는 자세는 돈 주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동만의 팀 문화, 수업 체계, 동아리, G-IMPACT, HANST 등 수많은 공동체 활동이 얼마나 소중한 문화인지 졸업하고 더욱 깨달았습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 얼굴이 붉어지곤 합니다.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거든요. 수업 과제 모임과 공동체 안에서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런 저를 나무라지 않고 품어주고 인내해준 선배들, 동기들, 교수님들이 기억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모태 신앙으로 자라난 저는 교수님의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고, 캠퍼스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생활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학교를 떠난 지금은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며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30년, 한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기술과 트렌드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변할 거예요. 그 변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향한 기준과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란 일터든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문장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한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기술이나 정보는 학교를 떠나서도 언제든지 습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학교 캠퍼스를 떠나 현실에서 신앙적 정체성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은 쉽지 않아요. 캠퍼스 안에서 다양한 학문과 신앙을 동시에 배우는 소중한 곳, 한동. 지난 30년이 그랬듯이 다음 30년도 한동의 귀한 가치를 잘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더불어 포항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좀 더 넓은 시야로 다양한 기회를 만드는 한동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동 후배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이 부족한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동은 저에게 큰 의미로 남아 있어요. 비록 학교는 떠났지만 선배, 동문, 후배와의 만남을 통해 여전히 많은 걸 얻습니다. 가끔 부모님께서 “과거로 돌아가 서울대와 한동대라는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어디를 선택할래?”라고 물으시는데요, 그때마다 “여전히 한동”이라고 답하곤 합니다. 한동에서의 시간이 지금의 나로 살아가는 데 큰 영향을 주었으니까요. 사랑하는 모교 한동의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한동에서의 시간을 충분히 누리세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품은 전문가, 임은주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졸업생 임은주입니다. 14학번으로 1전공 시각디자인, 2전공 제품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구글' 뉴욕에서 UX(User Experience)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대학 4학년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서 서비스 디자인을 경험하며 제 일에 확신을 가졌어요. 수업을 통해 생활 속 명확한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개선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디자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디자인이 단순히 심미적 차원을 넘어 사람들의 일상 경험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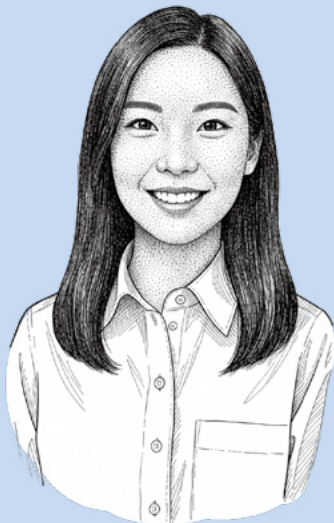
물론 졸업 후 곧바로 UX 디자이너 포지션을 얻지는 못했죠. 제가 목표로 삼은 디자이너들을 레퍼런스 삼아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채우는 데 집중하며, 언젠가 기회가 찾아올 때 기회를 잘 붙잡는 준비된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의 영역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그 중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기술은 UX와 디자인 패러다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I와 같은 유례없는 파괴적 혁신이 도입되며 효율적 이면서도 “선한 사용자 경험은 무엇일까?”라는 윤리적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이 디자인 및 의사 결정에 흔들림 없는 기반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여러 목적을 위해 일하지만, 일 그 이상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일은 생계유지를 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책임감 있게 누리고, 아름답게 가꾸는 소명입니다. 디자인을 통해 인간 친화적이고 사용하기 편한 기술, 서비스, 선한 영향력을 기대하며 매일 치열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임은주는 14학번으로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를 졸업했고, 현재 '구글' 뉴욕 지사에서 UX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한동에서의 배움이 어떤 힘이 되었나요?

오랜 기간 고민하고 노력한 프로젝트가 실제로 론칭되어 사용자들이 개선된 편의성을 통해 큰 편익을 누리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반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 치열하게 협업할 때 발생하는 인간적 갈등은 여전히 힘듭니다. 저의 노력이 성과와 직결되어야 하는 현실 속에서 한동에서 경험한 따뜻한 공동체를 만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도 한동에서 배운 공동체의 힘이 저를 붙잡아주곤 합니다. 기숙사 생활과 팀 프로젝트를 통해 깊이 배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존중, 따뜻한 포용력이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듯해요. 그 배움 덕분에 제가 먼저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고 소통한 결과, 동료들에게 신뢰를 얻으며 팀워크를 견고히 만들 수 있었어요. 한동에서 받은 공동체의 사랑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한 순간과 인물이 너무 많아 하나를 꼽기 어려워요. 해마다 새로운 팀에서 만난 귀한 인연, 디자인의 기초조차 몰랐던 저를 지금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지도해주신 시각디자인과 제품디자인 교수님들,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즐거움을 배운 학부 합창 대회 등등 모든 순간이 감사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한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급변하는 세상과 다변화되는 가치관 속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품은 전문가로 살아가는 데 불확실하고 모호한 선택지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한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영역은 각자의 전문 분야와 삶의 현장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한동이 걸어왔듯이 시대의 난제에 답하는 대학과 공동체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한동 후배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한동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동에서의 모든 시간이 귀한 축복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한동에서 배우고 자랄 수 있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동에서 배운 사랑과 따뜻함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나아가 시대의 기준을 세우는 리더로 성장하는 한동 후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한동에서 배운 사랑과 따뜻함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시대의 기준을 세우는 리더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광야에서 무너진 곳을 일으켜 세우는 한동인, 서충모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5학번으로 ICT창업학부와 경영경제학부를 졸업한 서충모입니다. '미드바르'라는 식량 안보 기술 스타트업을 창업해 일하고 있습니다. 미드바르는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뜻인데요, 광야처럼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도 농업 생산이 가능하도록 돕는 스마트 팜 솔루션과 그린 바이오 기술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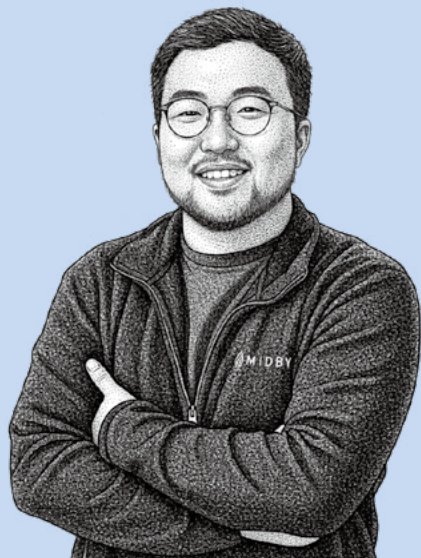
학창 시절부터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ICT창업학부와 경영학과를 선택했죠. 하지만 지금처럼 농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꿈꾸며 일할 줄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한동에서 보낸 20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동시에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나의 재능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등 수많은 질문을 던졌던 시간이었지요.

한동은 그런 고민을 깊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곳이었습니다. 비록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명확히 정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쌓였던 고민들이 어느 한 시점에서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지금의 길로 이어진 듯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고민이 많고, 질문도 멈추지 않아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이 순간에도 새로운 도전의 문턱에서 계속 고민하고 배우고 있지요. 지금 제가 걷는 이 길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질문과 여정'의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의 영역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그 중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농산업 분야에서도 스마트 팜 기술을 통해 자연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작물을 생산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노동력을 대체하는 AI 농기계와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 개발 보급되고, 그린 바이오 기술을 통해 토지가 아닌 연구실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서충모는 15학번으로 ICT창업학부/경영경제학부를 졸업했고, 현재 스마트 팜 솔루션 및 그린 바이오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스타트업 '미드바르'를 창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의 판단과 관계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회사의 방향을 결정하고, 여럿이 함께 일하는 조직과 문화를 만들고, 고객을 마주하는 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사 결정’이더라고요. AI가 조언은 해줄 수 있어도 사람의 고민과 선택, 책임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을 갖기 위해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현장에서 크고 작은 의사 결정을 하며 후회도 하고, 아픔도 겪고, 성취도 경험하고 있지요. 절실한 마음이 앞서 실수했던 순간도 있었으나, 결국 정직하고 바르게 가는 길이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동에서 배운 정직함, 공동체성, 그리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기준으로 삼고 일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한동이 왜 정직과 공동체성을 그토록 강조했는지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목적을 위해 일하지만, 일 그 이상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일이란 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일이 나를 성장시키고, 아픔을 주고, 기쁨과 성취도 줍니다. ‘We Secure Your Food’라는 미션을 지닌 미드바르가 성장하고, 많은 이에게 먹거리와 먹거리를 생산하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오히려 연차가 쌓일수록 일하는 이유가 많아져요. 소수의 인원으로 시작한 조직이 어느덧 여럿이 함께 일하고, 그 동료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시점을 지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일하는 목적이자 책임감을 느끼는 지점입니다. 미드바르는 중동 요르단 프로젝트를 통해 난민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얻은 난민들이 스마트 팜을 운영하고, 작물을 생산해 판매하는 모델을 확장하고 있어요. 이 일을 통해 난민들이 소득을 창출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있지요. 그들에게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일을 하고 있어요.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한동에서의 배움이 어떤 힘이 되었나요?

방금 언급한 중동 요르단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함께 일하는 난민들이 대학생과 교수님들 앞에서 스마트 팜 운영 경험을 나누고,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자랑스럽게 발표하며 “할 수 있다”고 말하던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처음부터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니다. “과연 가능할까?”라는 회의적 시각도 많았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슬로건 아래 꿈꾸고, 도전하고, 기도했던 한동에서의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 배움이 큰 힘이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부르심을 붙잡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걸어가고 있어요. 그 믿음 덕분에 광야 같은 상황에서 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장순홍 전 총장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총학생회에서 활동했는데요, 2018년 1월 초에 2017년 지진의 여진이 계속 이어져 캠퍼스가 흔들렸어요. 모두가 불안해하며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총장님께서 기숙사 대피 장소로 오셔서 놀란 학생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한동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지 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창업에 관심을 갖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갔을 때 총장님께서 방문해주신 것도 잊을 수 없어요. 저의 고민을 경청해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지요. 새벽마다 ‘새벽에 벌떡’에 참여해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신 모습, 이스라엘에서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총장님은 학교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디모데후서 2:4)는 말씀을 나누시며 믿음의 자세를 일깨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붙잡은 자는 세상에 나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도전과 실패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동인으로 성장시켜줄 거예요.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결혼과 출산 소식을 함께 기뻐해 주시고, 미국 CES에서 미드바르의 성장을 지켜보시며 누구보다 진심으로 응원해주셨어요. 총장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과 사랑이 지금도 감사함으로 깊이 남아 있어요.

앞으로 30년, 한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이사야서 61:4)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30년을 맞은 지금, 각자의 부르심과 전문성으로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한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동 후배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한동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깊이 발견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졸업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부딪치고, 경험하세요. 한동에는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눌 좋은 친구, 교수님, 공동체가 있어요. 공부, 공동체, 예배 등 모든 시간에 열정적으로 몰입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 시간이 쌓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발견할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붙잡은 자는 세상에 나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많이 실패하면 좋겠어요.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세울 것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동인으로 성장시켜줄 거예요.



이웃 사랑의 가치를 전하는 Bridge Builder, 박건우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6학번 졸업생 박건우입니다. 국제지역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하고, 광화문에 위치한 외교부에서 지난 1년 동안 근무한 후, 지금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공군 통역장교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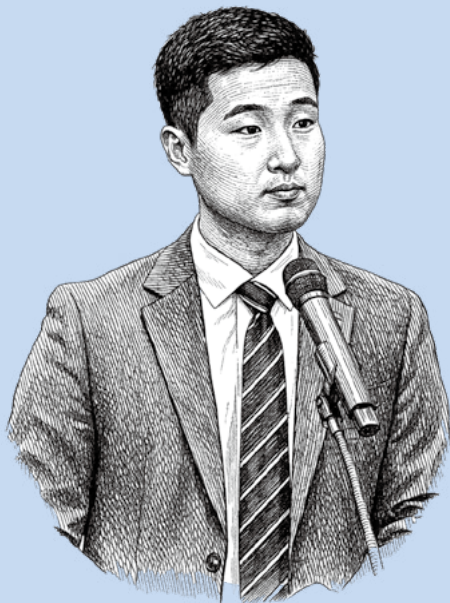
이 일을 시작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위인전을 즐겨 읽어서였을까요? 어릴 적부터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외교관이라는 직업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꾸라》라는 책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국가를 대표해 세계라는 무대에서 활동하는 모습에 매료되어 외교관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 마음에 소원을 허락하십니다. 제 안에 생겨난 ‘외교관’이라는 소원을 우연이라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보이지 않지만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지금 당장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마음 속에 작은 소원을 붙들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의 영역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그 중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기술의 발달로 세계는 한층 가까워졌으며, 역설적으로 디지털이라는 장벽은 우리를 고립된 섬처럼 분리시켰습니다. 과거에는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이웃’이라 불렀으나, 지금은 ‘동맹’이나 ‘파트너’처럼 이해와 이익의 개념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냉정한 국제 관계의 현실 속에서 이웃(국가) 사랑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그럼에도 다른 국가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임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만 잘 살기 위해 성을 쌓는 castle builder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며 소통하는 bridge builder로 사는 것이야말로 외교를 향한 한 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건우는 16학번으로 국제어문학부/경영경제학부에서 국제지역학과 경제학을 전공했고, 지난 1년간 외교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공군 통역장교로 군 복무하고 있다.

**우리는 여러 목적을 위해 일하지만, 일 그 이상의 존재
이기도 합니다.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온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크리스천의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가 되겠죠. 가끔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준비되지 않으면 어떨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금 이곳을 저를 준비시키기 위한 그분의 뜻이라고 믿어요.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가장 어려웠던 순간
은 언제였나요? 그때 한동에서의 배움이 어떤 힘이 되
었나요?**

외교부에서 일하기 시작하던 무렵 첫 직장이었던 만큼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스스로를 자책하곤 했습니다. 다른 크리스천처럼 하나님의 굵직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불평만 쏟아내는 자신이 부끄럽고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돌아켜보면 한동에서 만난 하나님은 흥해를 가르거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잠언 4:23)고 말씀하셨죠. “정직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성실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가르침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일상의 무기인 ‘정직’과 ‘성실’로 세상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일상을 조금씩 다듬어나갔습니다. 작은 일에도 성실히 임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습관을 쌓아가며 내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한동에서 배운 믿음과 가치가 삶과 일터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전적으로 믿어주시고, “집을 팔아서라도 스승을 사라”며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시 공부에 매진하던 3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빠르게 지나갔지만, 묵묵히 기도로 중보해주신 부모님께는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합격 소식을 전하기 위해 부모님께 전화드렸을 때 웅기종기 모여 저보다 더 기뻐하시던 아버지, 어머니, 누나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앞으로 30년, 한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통일 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한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통일을 머나먼 일로 바라보고, 두 개의 국가라는 개념이 대두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두려워하며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해 7년의 흉년 동안 장차 닥칠 7년의 흉년을 준비했듯이, 저를 포함한 한동인이 앞으로 확실히 다가올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K-요셉’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한동 후배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기꺼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살아가겠다는 한동의 슬로건은 참으로 강력한 외침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금 당장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모두가 “아니요”라고 외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꼭 움켜쥐고 도전하는 후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Why not challenge the world?”



지식과 기술은 어디서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 활동, 협업, 섬김의 자세는 한동에서만 배울 수 있어요.